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SEP 1 7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930–931 1982년 9월 17일(금) & 18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September ~~10 & 11~~ 17&18, 1982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재개

"내란방지 위해", 게마옐 암살 12시간뒤

(베이루트)레바논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 바쉬르·게마옐이 암살된지 12시간만인 15일 새벽 탱크와 포함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군이 서베이루트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다.

지난 8월 10주간의 공격행위 끝에 팔레스타인 게릴라부대를 서베이루트에서 격퇴한 이스라엘군은 새 진격이 게마엘 암살로 서베이루트의 기독교와 회교도간의 내란 발발을 막기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2개의 팔레스타인난민촌 주위에서 벌어진 레바논군과의 전투에서 2명의 이스라엘군이 죽고, 42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무성은 이스라엘군이 서베이루트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번 군사작전이 제한적인 경고조치"라고 밝혔으며, 백악관 당국은 이스라엘의 긴장을 고조시킬 행위를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바티칸에서 교황 요한·바오로2세와 회담한 야세르·아라파트 PLO의장은 이스라엘의 공격재개가 8월12일의 휴전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외무성은 아라파트와 교황과의 회담을 통렬히 비난, "교황이 국제테러리즘의 본산인 살인자집단의 두목 아라파트를 만났다는것은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국민 나라 가질만 해"

교황, PLO의장 만나 견해피력

(바티칸)교황 요한·바오로2세는 15일 교황청 집무실에서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을 접견, 팔레스타인국민은 자기 나라를 가질만 하며,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러행위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파트PLO의장의 바오로2세 비공식 알현은 25분간 진행되었으며, 바오로2세가 PLO의장을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투복스타일의 올리브황갈색 자켓복장을 하고 전통적인 아랍 두건을 쓴 아라파트의장은 이날 교황을 알현하기 위해 항상 허리에 차고 다니는 권총을 휴대치 않았으며, 삼엄한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바티칸에 도착했다.

바오로2세는 PLO의장을 접견한 뒤, 성·베드로 광장에 나가 운집한 2만여명의 순례자들을 위한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과 PLO는 "다같이 상대방의 존재와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아라파트의장은 자신의 교황알현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으나, 그를 수행한 팔레스타인 성직자에 의하면 아라파트의장은 이번 알현이 PLO가 국제적인 지지를 얻는데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라파트의장은 약30분간 머물은후, 미소와 승리의 표시를 하면서 방탄 리무진을 타고 바티칸·시티를 떠났다.

교황 바오로2세가 PLO의장을 만난 뒤 바티칸은 팔막한 성명을 통해 바오로2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호의"를 표했으며, 아라파트의장에게 중동평화의 해결은 "어떠한 형태의 무력이나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 또한 모든 형태의 테러행위와 보복을 삼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오로2세는 또한 "모든 국민, 특히 팔레스타인국민의 나라를 가질 권리와, 이스라엘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그러나 바티칸측과 PLO측 어느 대변인도 아라파트의장이 교황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이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교황이 PLO의장을 만난 것을 "교황자신의 소원인 평화진행을 해치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야세르·아라파트 파레스타인 해방기구(PL)의장이 바티칸에서 교황 바오로2세와 처음으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교황은 PLO의장에게 팔레스타인 국민은 자국을 가져야 되지만 중동의 모든 당사자는 폭력을 피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애인 변심에 격분한 군인

총기난동 2명사망 6명부상

(서울)애인이 변심한데 격분한 한사병이 부대를 탈출, 술집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하여 2명을 사살하고, 자기 어머니를 포함한 6명을 부상당하게 한 사건이 15일새벽 인천에서 벌어졌다.

소속부대를 탈출, 술에 만취된 후 자정직전 술집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M–16소총을 무차별 난사하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았다.

이때 손님1명과 여종업원1명이 탈출하려다 총에 맞아 숨졌고, 6명이 부상당했으며, 부상자중에는 자수를 권유하러 급거 현장으로 달려온 김상병의 어머니와 군수사요원 1명이 포함됐다.

김상병은 술집안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을 인질로 잡고 계속 대피하다가 포위하고 있던 군경에 자수했다.

〈본사동정〉

편집진 강화

김운영씨 입사

◆김운영씨

서울 연합통신 국제국영문특집부 차장 김운영(41)씨가 토론토한국일보사 편집진에 합세, 이달초부터 신문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김차장은 69년 동화통신사에 영문뉴스부에서 4년간 근무했고, 그 동양통신사 에서 일하다가 통신사 통합으로 현재의 연합통신 국제국 영문특집부에 있으면서 주로 영문휘처(Feature)스토리 작성에 주력해온 언론계 배터랑이다.

고려대영문과 출신의 김차장은 일시 언론계에서 떠나 문화공부부 해외공보관 전문위원, 주한 캐나다대사관 행정보좌관에 근무했었다.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한인신용조합 일반정기예금	한인신용조합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		12.5%
90일	13.5%		13 %
180일	13.5%	13.5%	13 %
365일	13.5%	13.5%	13 %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여권위조단 배후추궁

서울 경찰 미스 서울사건관련

〈서울본사전화〉 한승희씨와 이유정양의 가짜여권 출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경찰서는 14일 이들의 불법출국을 도와준 여권전문위조조직이 있을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 사건배후를 캐고있다.

경찰이 배후조직을 의심한것은 지난10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경찰에 체포된 한씨가 미국에서 여권2개를 8백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나 그전에 이미 위조여권으로 미국을 다녀온일이 있고 이번에 사용한 여권2매중 1매는 김민숙씨가 빌려 준것으로 밝혀져 여권의 사진을 감쪽같이 해주는 위조조직에 그돈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있다.

모여진 온정의 성금

한인회관기금 $6만육박

토론토한인회관 확장 이전기금이 9월12일 현재 164명 기증 58,720달러 걷혔다.

동모금위원회(위원장 조한철)가 동분서주한 끝에 이같이 고무적 반응을 얻은 것이다.

기부금 내역은 $5천 1명, $3천 1명, 2천 4명, $1천 9명, $7백 1명, $6백 2명, $5백 31명, $3백 18명, $2백 21명, $150 2명, $1백 56명, $50 15명, $30 1명, $20 2명이다.

헤밍웨이 동생도

권총자살

(마이애미·비취)권총으로 자살한 미국 작가 어네스트·헤밍웨이의 동생 레이세스터·헤밍웨이(67)씨가 또 권총으로 자살했다.

역시 작가인 레이세스터씨는 13일 마이애비·비취의 자택에서 머리에 관통상을 입은 시체로 발견됐다. 가족들은 헤밍웨이씨가 최근 건강문제로 우울했었다고 전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해는 또 다시 떠오른다」등의 소설을 쓴 작가 어네스트·헤밍웨이는 지난 61년 머리에 권총을 쏘아 자살했었고, 두 형제의 아버지 에드몬즈·헤밍웨이 역시 권총 자살했었다.

낚시를 즐긴 레이세스터·헤밍웨이는 프리랜스 작가로 형의 전기를 포함한 6권의 저서를 냈다.

마르코스

미국에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도·마르코스대통령(65)이 부인 이멜다여사와 함께 미국방문을 위해 14일 마닐라를 떠났다.

존슨대통령시절이후 16년만에 첫 공식방문이다.

미리 처남을 워싱턴대사로 파견하고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는 미언론들을 달래려 특별홍보반을 배치하는등 마르코스는 만전의 준비를 하고있지만 국내의 분위기가 그리 호의적인것이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 토론토 한국일보

은하 보석
ROLEX
대리점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난콤화장품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사 고▶

한국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모금

모국에서는 현재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모금운동」이 한창 열띠게 전개되고 있으며, 전국적 호응을 받고 있읍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배달민족의 얼과 자주독립을 향한 피어린 발자취를 찾기 위한 열망이 전국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사는 이 운동에 적극 호응, 해외에서도 모금운동을 펴고 있사오니 많은 협조로 정성어린 성금 모으기에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을 세우는데 있어 해외교포들의 뜨거운 성금은 크나큰 힘이 될 것입니다.

모집기간 : 82년 9월~
보낼 곳 : 토론토한국일보사
(1025 Dupont St. M6H 1Z7 전화 : 533–2364) Tor.

※겉봉에 「독립기념관 건립기금」이라고 쓸 것.

조상의 독립심 기리는 성금
너도 나도 참여하자

감사절단풍관광

"Y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제14회 "Y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행사가 토론토한인 YMCA 주최로 10월9일(토) 상오8시~하오7시반 알공킨파크 1일관광으로 실시된다.(회비 $20, 점심 각자지참)

대절버스는 3대로 A호차는 젊은이 중심의 씽얼롱과 함께 게임을 하며 가고, B호차는 노인들끼리 여흥을 즐기며 가고, C호차는 조용하게 쉬면서 가기로 정했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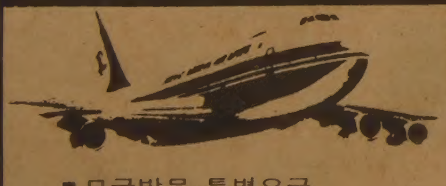
B) 497–3800
R) 284–9052

미크마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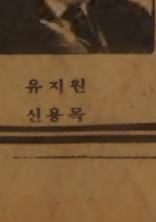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빈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특별가격

매달 $50
또는
현금 할인
PANASONIC
SHARP
NCR
SWEDA
TEC

○ 중고기계 $150부터
○ 고장난 기계 수선도합니다.
2년 보증

PAPER –SERVICE– REPAIR
252–7377 안수일
822 THE QUEENS WAY
(퀸스웨이×이스링톤)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제2회 진명편물패션쇼

서은복씨 작품 50여점 판매

진명여고동창회(회장 장석정) 가 오는2일(토) 오후7시 연합교회에서 제2회 진명 편물 패션쇼를 개최한다.

출품될 작품은 동창인 편물디자이너 서은복(43)씨의 아동복, 야외복, 겨울코트, 남녀쉐타등 50여점이며, 작품은 패션쇼에서 즉석 판매된다.

모델로는 직업모델 전인숙씨가 특별출연하며, 동창원옥재, 이은주씨와, 부부로는 정성덕동창과 남편 이광민씨, 김명숙동창과 김연수씨 ,이정훈동창과 최규식씨 부부, 이외에 조각가 장연탁씨의 딸 윤정양, 김용숙동창의 딸 정세란양, 김한조군, 홍영옥동창의 남편 이형재씨등이 출연한다.

입장권은 $3 연락처는 261-2197(서은복)

진명여고동창회는 81년도4월 거구장에서 제1회 편물패션쇼를 가진바 있다.

「해외간호원주소록」

<재미간호신보사>발간준비

LA의 월간신문(발행인 유분자) <재미간호신보>사는 「해외간호원주소록」발간을 위해 캐나다소재 간호원들의 연락을 바라고 있다.

창간4돌기념 사업으로 착수한 이 명단은 미국, 캐나다, 유럽, 중동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간호원들의 현주소를 한데 묶는 광범위한 사업으로 연락마감은 10월5일.

캐나다 연락처는 김종인 ((R)(416)499-3167, (B)759-3634)

간호논단, 해외간호원주소록, 간호원 상식및 부록을 싣게 될 이 책의 특색은 다만 주소록에 그치지 않고, 간호직업의 백과사전적 지침서를 겸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현재 한인간호원이 4~5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생반신설

한맘한글교 이전

오는 26일(일) 개강하는 토론토한맘한글학교(교장 허영식)는 이제까지 사용하던 쎄인·폴 가톨릭스쿨을 떠나 새로 지은 한인가톨릭회관(439 던다스·이스트)으로 이사한다.

학급수도 종전의 유치반, 1~6학년, 중학반에 새로 고등반(고교생반)을 증설 수업하고, 도서실도 마련했다.

나나·무스꾸리

매씨·홀 공연임박

그리스의 세계적 팝송가수 나나·무스꾸리가 오는 21일부터 6일간 매씨·홀에서 공연한다.

티켓은 $19, $16, $13, $9.

예매는 BASS 698-2277이나, 매씨·홀 363-7301로 월~금 상오11:00~하오4:00까지 전화로 가능하다.

낚시협친목대회

토론토 한인낚시협회(회장 정삼열)는 회원 친목대회를 오는 25일(토) 새벽6시부터 하오 5시까지 벨웃·콘서베이션·파크(Belwood Conservation Park, North of Guelph)에서 갖는다.

연락처는 755-9902 Mr. 정.

비회원이 이 대회에 참가를 원할 경우 당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1.5파운드짜리 파이크

최남해씨, 벨웃팍서 낚아

토론토 한인낚시협회 총무 최남해씨(38)가 13일 벨웃·콘서베이션·파에서 무게 13.5파운드, 길이 36.5인치의 파이크를 낚아 신기록을 수립했다.

지금까지 한인 낚시계의 최대어기록은 11.5파운드, 35인치였다.

이날 낚시협회 이사인 배봉기씨(영락교회 장로)와 함께 구엘프(Guelph)북쪽의 파에서 민어를 미끼로 대어를 낚은 최씨는 건축설계자이자 만화가.

낚시경력은 10년.

최씨는 이 고기를 박제할 계획이며 박제되었을 경우 가격이 $2천 정도될 것으로 본다고.

◆자신이 낚은 36.6인치 짜리 대형 파이크를 들어보이고 있는 최남해씨. 오른쪽의 배장로와함께 낚시갔다 행운을 만났다.(14일 본사에서)

—토막일화—

딱한 광고주의 호소

"한밤의 괴전화 끊어달라"

지난2월 본지에 '아파트 나누어 쓸 여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던 Mrs.김이 14일 딱한 사정을 본지에 호소해 왔다.

딱한 사정이란 광고를 보고 문의해 온 남자로 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심야에 전화를 걸어오는등 괴롭힘을 받고 있다는것.

30대로 들리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처음에는 아는 여자를 위해 방을 구한다고 전화를 걸기 시작하다 "이민온지 얼마 안돼 외롭다", "소포결혼으로 2년전 캐나다에 왔는데 1년쯤 살다 여자와 헤어졌다"면서 자기사정을 호소하더니 최근에는 전화로 호통을 치는 김씨에게 "전화를 불쾌하게 받으니 가만 안두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김의 전화번호가 바뀌어지자 어떻게 알아냈는지 김씨가 운영하는 도너츠·숍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밤12시, 1시에도 전화를 걸어왔다.

자신을 32살난 박씨로, 혹은 모신문기자로 칭하기도 한 이 괴전화의 주인공은 지금부터라도 전화를 삼가도록.

社說

배우는 삶

—새 학년도를 맞아

9월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다시 학창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들은 새 학년도를 맞아 다시 배움에 열중하게 된다. 그러나 배움은 결코 나이가 어리고 젊은 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다.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배움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성장이 있는 삶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세상은 하나의 학교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은 모두 우리의 스승들이다. 훌륭한 사람에게서는 미덕을 배우고, 악한 사람에게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경종의 교훈을 배우게 된다. 성공한 사람에게서는 나도 그와 같이 해야 되겠다는 격려의 교훈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건들과 사물은 인생교본이다. 배움이 없는 인생, 그것은 끝장난 삶이다. 새 세계에 적응하고, 새 문화를 창조해 가며, 새 시대를 이끌고 나갈 일꾼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배우는 사람이다.

인간은 「되어진 존재」로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고, 「되어져 가는 존재」로 보내졌다. 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배움처럼 귀한 것은 없다. 성장과정에서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다. 배움은 정신적 양식이다. 배움을 등진 삶에 정신적 빈곤이 찾아오게 되고, 배움을 게을리 하는 곳에 인격적인 허약이 뒤따르게 된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개방적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을 절대화 하지 않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가는 아량을 갖는다. 배우는 마음은 겸손하다. 지성의 거목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다"고 배움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다. 어쩌면 그러한 겸손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위대한 스승이 되게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만한 사람은 배울수 없다. 교만한 마음에는 진리가 자리잡을 곳이 없는 까닭이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남을 나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려 높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다. 텅 비어 있는 마음에만 새 진리는 언제나 자리 잡을 수 있는 법이다. 배우는 사람은 소망속에 살아가는 마음이다.

어떤이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고, 둘째는 현재에 사는 사람이며, 세째는 미래에 사는 사람이다.

과거에 사는 사람에게 새것은 창조되지 않는다. 현재에 사는 사람에게도 미래는 없다. 배우는 사람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다. 새 사건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사람에게 일어난다.

창조는 내일을 바라보고 성실히 공부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다. 배우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은 돈있는 사람이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배우는 사람이다. 배우는 사람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내일의 역사는 배우는 사람의 것이다. 우리는 가끔 "바빠서 공부할 수 없다"든가,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을 수 없다"는 말을 듣는다. 어느 정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나, 그말이 100% 진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만일 책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려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 최소한 하루에 한시간, 혹은 30분 정도는 독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변명이요, 핑계에 불과할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을 왔다고 한다.

자녀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부모들이 좋은 배움의 본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 이상으로 효과적인 자녀교육의 방법이 없다. 부모들은 책 한장 읽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만 "공부하라", "책을 읽으라"고 야단치는 것은 자식들에게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 일으키기 쉽다. 그보다는 부모들이 솔선수범하거나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몇배나 효율적이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사회는 자기만 원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기회가 주어져 있다. 지역별로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성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행해지고 있다. 도서관에는 심지어 한국서적까지 비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민자들이 돈 버는데만 급급하고, 책을 읽고, 배우는 일에는 너무나 등한 한 것 같다. 이런 삶속에서 그들의 내면적 삶이 너무 깡말라 가는것을 보게 된다.

배움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의 하나이다. 공자는 "배우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말했다. 배움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해 가는 기쁨은 우리의 내적 삶을 살찌게 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보람이요, 희열이다.

가끔 우리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공부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러나 배움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 소크라테스는 노령에 악기를 배웠다고 한다. 정치가 케토는 86세에 헬라어를 배웠다고 한다. 나이가 많다고 배우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또 나이가 많아 배우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다.

배우되 참된 것을 배우고, 경건을 배우며, 옳은 것을 배우는 것은 더욱 귀한 것이다. 현대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기술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다는데 있다. 참인간을 만들고, 참인격을 소유한 인물로 만들어 가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하나의 기술만 가르쳐 주는 교육이 되고 있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오늘 이 시대는 인간이 사람됨에 의해서 보다, 그 능력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이것이 큰 비극이다. 여기에 온갖 비인간화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렇다고 기술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되는 교육이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취미교실신설

Y한글학교 개강

토론토Y한글학교(교장 김창열)는 오는 25일 개학, 매주 토요일 아침10시반~하오1시 빅포드파크고교(777 Bloor St, W, Tor)에서 한글교실(유치반·초급반·중급반)및 영어교실(노인기초반·초보반·중급반·등급반·회화반-무료)을 실시한다.

취미교실도 이날 개강, 매주토요일 하오2시~8시 수업하며, 12월11일(토)까지 한인YMCA(931 College St, Tor)에서 실시한다.

수업과목은 한국무용·기타·태권도·피아노·바이올린·미술·수영·발레재즈이다. 수강료는 1과목 $30, $60.

WAY SIDE GALLERY

초대합니다

여기 젊음의 푸른 꿈을 화폭에 가득 담은 미술잔치에 모시오니, 부디 오시어 한 말씀 채질을 부탁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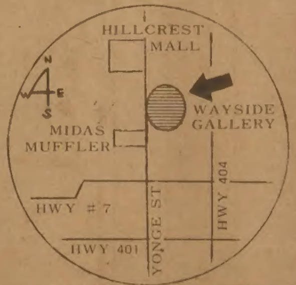
6인전

조중형 · 엄 혁 · 조영미 · 강상덕 · 김길수 · 김인호

리셉션 : 1982년9월17일(금) 오후7시
기 간 : 9월17일부터 10월9일

★영업시간 : 월, 화, 수, 토 오전9시~오후6시
목, 금, 오전9시~오후9시

9185 YONGE ST. THORNHILL
☎ : 886-1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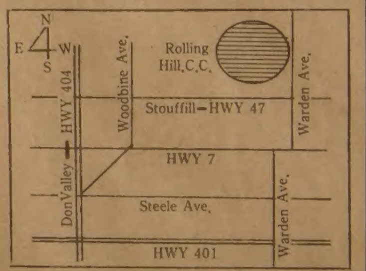


동우추계친선골프대회

아래와 같이 동우 추계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부부동반하시어 하루를 즐기시기 바라며 골프를못치는 부인께서도 같이 나오셔서 디너파티에 같이 참석하여 여러 부인들과 친목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 9 월25일(토) 정오12시
※장 소 : Rolling Hill Golf and Country Club
※참가비 : $35.00(싱글) $60.00(부부) (디너포함)
※시 상 : ⊙Grand Champion ⊙Low Gross
⊙Lady Gross ⊙Net A. B. C. 각 1, 2, 3등
⊙Longest ⊙Nearest
⊙Lucky 7 ※각종 부상.
※연락처 : MR. 고 ☎ 284~8807
MR. 신 ☎ 591~6803
MR. 김 ☎ 266~6358

동우회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오후8시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원녹용, 인삼, 생로얄제리 → 다량확보 !

보약의 계절에 귀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 상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종합비타민
- Nut 일체
- 인 삼
- 녹 용
- 웅 담
- 사 향
- 산 삼
- 중 풍
- 고혈압
- 심장병
- 부인병
- 간장병
- 양기부족
- 비만증
- 위장병
- 신경통

※지방에 계신 분께는 Mail Order 환영합니다.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대표 조 지 섭

〈독자의 광장〉

값다운 삶

이 상 온(토론토 가정주부)

지난 6월22일 Sherwood Hall, MD 부부결혼 60주년 축하파티에 초대되어 막내딸과 그의 친구를 데리고 우리내외는 Athens를 다녀왔다.

4년전부터 별권 책을 구입하여 집에 비치해 놓고 토론토대학에서 동양학을 전공 하였던 메모리얼·맥도날드 교수와 이곳 우리 관리 몇분에게 증정한 바 있어도 집 자식들이 별로 관심이 없더니, 작년 여름에 큰딸과 사위를 데리고 헐씨가 사는 아일랜드에 갔었고, 돌아올때 큰딸이 책을 5권이나 사들고 오며 차츰 부모와 뜻이 통하게 되였다. 여기에 그들의 공로를 소개한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백년전 부자 2대에 걸쳐 선교하다가 순교한 우리 한국인의 은인-그분의 아들 Sherwood Hall, MD을 찾기 위해 나는 이곳에 76년 11월26일 이민 왔지만 2년간은 어리둥절 보내다가 3년 되는해인 78년에 서울 연세대병원 홍콰 외과과장 김기호씨께 찾을길을 부탁하니 이미 노환으로 90세 가까운 분인데 사망 하셨다는 회답이 왔다.

Sherwood, MD를 1957년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사진으로만 보았지만 이분이 캐나다인이고 이나라에 우리가 와서 사는만큼 꼭 찾아뵙고 싶던차에 〈한국일보〉 1980년 8월27일자에 우연히 발견한 후부터 계속 편지를 주고받아 왔다. Hall, MD와 그 전기 번역중이신 전 서울대학 영문학교수인 김명수선생께서 중간에 서서 통하게 되었다.

신문에 실린 내용은 「한국근대사의 산증인! Sherwood hall, MD 자서전을 내 2대에 걸쳐 의료선교봉사 증언하는 (한국서 청진기를 들고) With Stethes Sopein Asia Korea을 펴냈다. 32년간 폐병퇴치 모금을 위해 「크리스마스씰 탄터」라고 불리어 졌다. 그의 모친 역시 평양 해주에서 맹인학교를 창설했고(I.B 씨니토리엄 폐결핵요양원), 빈궁한 한국인을 위하다가 부친은 청인전쟁때 희생당하고, 부인 홀씨 에디드와 함께 한강변 양화진 외인묘지에 나란히 묻혀 있다.

「아들내외(셔웃, 홀씨)는 태평양전쟁직전에 일본헌병대에서 고문끝에 추방당했다고 써 있으며, 현재 뱅쿠버 근교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음」

이렇게 실린것을 읽었다.

인생이란 제자신을 위해 먼저 닦고, 갈고, 평화롭게 지내야겠고, 그다음에 대중을 위해 헌신해 주신 분들도 돌이켜보며 파거의 공로나 노로를 위안 드릴 수 있는 마음에 자세좀은 우리 스스로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다.

교육이란 학교와 사회, 가정 구석구석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책(자서전)을 널리 젊은이나, 학생들에게 권유하여 읽게하면 선인들이나, 특히 외국인이 남긴 삶의 지혜와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율적 노력을 기울여 삶을 기름지게, 마음의 찌꺼기를 씻는 것도 공부 못지 않은 독서로써 참뜻을 찾지 않는가 생각한다.

우리들은 자식들을 위해 모국을 떠나 이민왔다고 잘 말한다. 우선 서구문화와 과학지식, 개인과 국가개념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효과라는 것 역시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 사회를 살찌게 하는 기반을 다져줄 수 있는 젊은 청소년들에게 그 자서전을 꼭 선물용도 좋고, 권장하는 마음 간절하다.

자취를 더듬어 살려준 길잡이! 드러난 애국보다 묻혀있는 한국애를 발굴해 내는 것이 보다 뜻있는 산 교육인 줄 안다.

◆닥터 철씨 내외와 우리들 그 분들의 결혼 60주년 기념날(82. 6. 21)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흉기와 사나이

<69>

어떤 殺人 ⑯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야"

문자는 두개의 약병을 들어지듯 쏘아보았다。두봉은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가리켰다。

『이 가루약—이건 마취제야。조금만 먹으면 금방 정신을 잃어。그리고 너덧시간 정도는 깨어나지않아。그리고 이 액체는 청산이야。한 방울만 들이키면 즉사해。아까 여기 오기전에 실험해봤는데 개두마리가 뻗는 걸 봤어。」

문자는 눈을 크게뜨고 오빠를 바라보았다。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않았다。

「아무리 강한 놈이라해도 이걸 조금만 마시면 바로 즉사해。」

다시 또 침묵이 흘렀다。그러나 오래 끌지는 않았다。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었다。

『넌 어떡하면 좋겠니?』

그는 누이에게서 어떤 대답을 기대하며 물었다。그러나 그녀는 얼른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았다。그녀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오빠는 어떡 하면 좋겠어요?』

『사람을 녹여버릴 수 있는 약이 있다면…흔적도 없이 녹여버릴 수 있는 약말이야。그런 약이 있다면 당장 써 먹겠다만…』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은근히 오빠를 재촉했다。

『넌 살인에 대해 생각해봤니?』

『생각해봤어요。모세같은 인간은 죽여도 싸다고 생각했어요。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하지만…』

『하지만 뭐야?』

『하지만 여자 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놈을 처치하겠어요。그저 생각뿐이었지요。』

『문제는 시체야。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야。이 대낮에…』

오누이의 시선이 무섭게 부딪쳤다。그들의 눈빛은 어느새 공범의 빛을 띠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놈을 죽이실려구요?』

朴 男 그림

『어떻게 생긴 놈인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네말만 듣고도 그런 생각이 들어。』

『이건 어떻게 사용하나요?』

문자는 약병을 가리켰다。

『코피에 타면 돼。하여간 네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난 옆에서 도와주기만 할테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수 있어요?오빠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때 차임벨 소리가 들려왔다。그들은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왔다。어떡하지?』

『어떡하죠?』

차임벨이 다시 요란스럽게 울렸다。그들은 안절부절 못한 채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하여간 결관을 내야해。내가 코피를 가져오라고하면 약을 타서 가져와。코피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면 그만 두고。』

『어, 어떻게 마취제고 어떻게 독약이라고 했죠?』

『물약이 청산이야。』

그러나 차임벨이 또 울렸기 때문에 그의 말은 충분히 그녀의 귀에 전달되지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럽기만 했다。오빠를 안방에 들어가있게 하고 약병을 부엌에 갖다놓은 다음 현관쪽으로 달려가 인터폰을 집어 들었다。

생활영어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1,500만불이라는 권투사상 최대의 대전료(the largest purse in boxing history)를 받고 미국의 Sugar Ray Leonard($7 million)와 파나마의 Roberto Duran($8 million)이 재시합(rematch)을 가졌을 때의 일이다.

경기가 9회에 접어들자 갑자기 챔피언인 Duran이 기권을 한 후 은퇴를 선언하자 많은 권투 관계자와 fan들이 싱겁게 끝나버린 경기에 항의를 하게 되었다. 중계방송의 사회자가 Duran의 trainer에게 Aren't you surprised that he quit boxing?(듀란의 은퇴에 대해 놀라지 않는가?)라고 질문하자, 코우치는 I'm not surprised. He'll quit boxing sooner or later anyway.(놀라지 않는다. 언젠가는 결국 은퇴를 할 터이니까)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sooner or later란 ultimately(결국에), 혹은 At some unknown time in the future(미래의 언젠가)의 뜻으로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돌아올 사실」을 내포하는 말로서 회화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

sooner or later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본다.

「만일 그가 계속해서 지각을 한다면 언젠가는 결국 직장에서 파면될 것이다」If he continues to be late, sooner or later he'll lose his job.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He'll pass the bar sooner or later.

많은 교포들이 하는 말이 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의 조국에 돌아갈 것이다」I'm living in America now, but I'll return to my homeland sooner or later.라고.

A : Jack's late for work again?
B : Yeah, I think so. Is he always late?
A : Yeah. He's been late for five days in a row.
B : He'll be in trouble someday.
A : If he continues to be late, sooner or later he'll lose his job.
B : You bet he will.
A : 제-엑이 또 지각인가요?
B : 네. 그런것 같은데요. 항상 늦나요?
A : 네. 닷새동안을 계속해서 지각입니다.
B : 언젠가는 곤란한 일이 생기겠군요.
A : 만약 그 사람이 계속해서 늦는다면 결국에는 직장에서 쫓겨날 겁니다.
B :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FAMILY DOCTOR〗 왕운린 ☎: 968-1543 (B) 363-9196(R)
—건강상담. 종합진단. 간기능검사. X레이. 심전도. 소아건강. 가족계획—
600 Sherboune St. #402. (at Bloor)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243-9544
1391 WESTON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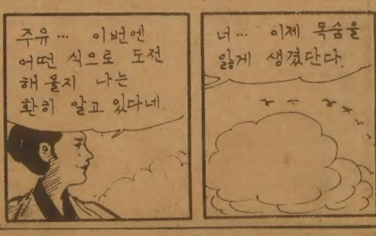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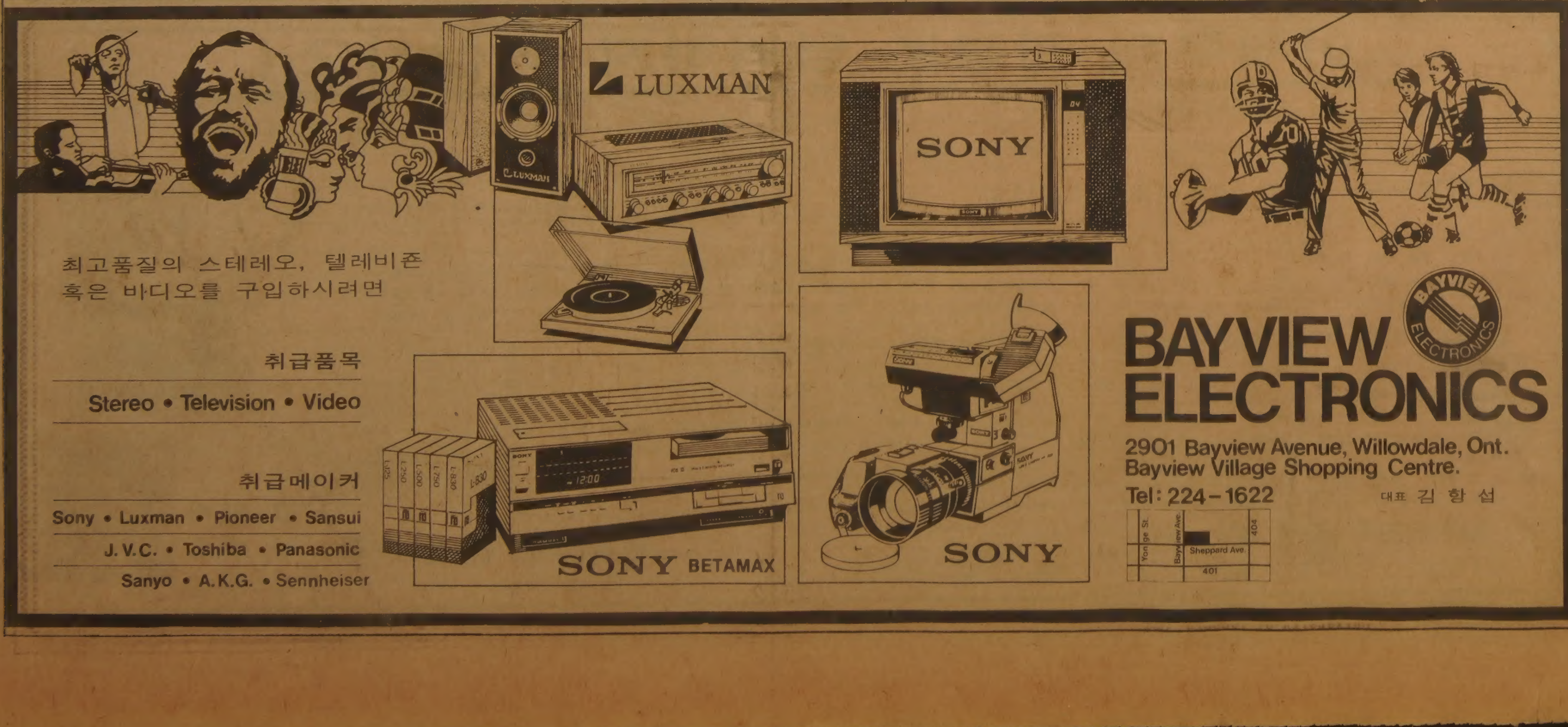
三國志

461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내년 賃金引上 6%內로

정부指針 "低物價·무역경쟁력위해"

民間·공무원·國營업체 망라

정부는 민간업계와 국영기업체의 내년도 임금인상 상한선을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마찬가지로 6%선으로 내정한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계당국에따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명년도에▲물가한자리수의 低物價추세를 정착시키고 ▲매년 경쟁이치열해가는 무역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임금인상이 6%내에서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자는 올해의 물가상승률은▲도매물가3%▲소비자물가 5.8%등 한자리수로 안정될것이 확실하고내년도에도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물가상승요인이없어 ▲도매물가5%▲소비자물가5·6%선에서 物價의 안정이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고말하고 이에따라 임금인상이 6%선에 그친다해도 實質賃金이 현상유지는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당국자는 미국의경우 경기가 30년대이후 최악의불황을 맞아 자동차勞組등 영향력이큰 産業勞組들이 기업의 채산성을 개선하는데 협조하기위해 84년상반기에까지 임금동결에 동의하는등 勞使협력을통한 自救策에 나서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와경쟁관계에있는 臺灣에서도 명년에는 實質임금이 올해보다 낮아질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당국자는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75년이후 臺灣등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것은 사실이나 명목임금상승률이 지나치게높아 섬유, 신발류, 타이어등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제품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감퇴되었다고 주장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77, 78양년도와 같은 임금의 폭등현상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의 경우 우리나라의 勞賃單價가 75년부터 81년사이에 124.4%가 오른데비해 ▲일본 4.3% 감소▲臺灣 31.1%증가▲미국 17.7%증가에 그치고있는것이 우리나라 경쟁력의 상대적인 약화를단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이당국자는 美, 日, EC등 OECD 선진국들과 臺灣, 싱가포르등 중진국들이 失業등 불황의 代價를 치르면서 物價안정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하고 우리나라경제도 이러한 세계적인 低物價추세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에도 임금상한선을 10%로 억제하는 임금억제정책(가이드라인)을 채택했었다.

獨立기념관 후보지 서울近郊나 大田에

政府검토 50만坪에 公園겸해

★관련기사 5면

獨立紀念館건립추진위원회는 기념관건립豫定地로 大田지역이나 서울近郊중 한곳을 택할것과 건립예정지 규모는 당초의 20만坪에서 50만평으로 늘려 잡을것을 검토하고있다.

건립추진위의 고위관계자는 14일 『독립기념관은 자라는 세대에대한 敎育場역할을 겸하게되는만큼 우선흥미있게 관람할수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독립공원이 들어설수있도록 예정지를 넓힐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기념관은 건물도중요하나 그내용물이 더중요하기때문에 史料가 마땅치않은것은 蠟인형과 같은것으로 形像化하는것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독립기념관이 國亂을 克服해온 民族史에 바탕을 두어 1단계로 抗日독립부분을 강조하는 기념관과 독립기념탑을 세우고 6·25館과 抗蒙史蹟을 담은 기념관을 차례로 만들계획임을 밝혔다.

對馬島등 海峽봉쇄

日自衛隊、韓半島전쟁 발발땐

82방위白書

【東京14日=宋孝彬특파원】 일본정부는 14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경우 일본의 自衛隊가 對馬島등 3개해협을 초계, 호위함등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날 이또오(伊東) 방위청장관을통해 발표한 82년도 防衛白書에서 『소련의 극동軍 증강이 일본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해상교통로방위를 위한 자위력증강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백서는 또한 『소련의 군사력증강과 함께 한반도非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1백20만 정규군이 南北으로 대치하고 있어 군사적긴장이고조되고 있다』고 지적 『한국의 방위노력과 미국의 對韓공약이 이지역의 긴장해소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며 대규모 무력분쟁이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않으나 70년대 북한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기때문에 이곳의 정세는 여전히 예측을 불허하고있다』고 경고했다.

이백서는 그밖에도『한국이 21개사단 52만명인데비해 북한은 40개사단 70만명으로병력수를 증강시켰고 전투기는 한국이 3백80대인데 비해 북한은 7백대로 크게 증강되었다』고 밝혔다.【해설3면】

太平洋함대 司令官 全大統領、접견 叙勳

全斗煥대통령은 14일청와대에서 실베스터·폴리 美태평양艦隊사령관을 접견하고 보국훈장 統一章을 수여했다.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장관, 李銀秀해군참모총장, 제임즈·스톰스駐韓美해군사령관이 배석했다.

·全대통령은 또 이날 미셸·조베르 프랑스 對外貿易相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金東輝상공차관, 알르레·배양 駐韓대사가 배석했다.

無記名旣得權 보호

내년부터 實名제의 民韓당무회의

民韓黨당무회의는 14일 實名去來制에있어서 旣存의 無記名금융자산에 대한 旣得權을 보호하는 반면 자금출처조사 免除대상을 嚴選할것을 골자로하는 정책심의회의 代案을 黨論으로 최종 확정했다.

▲新規금융자산의 實名化는 83년1월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旣存의 금융자산중 요구불假名예금은 83년6월30일까지 실명화한다 ▲假名저축성 예금은 滿期到來日까지 가명을 허용하고 만기후는 實名을 밝히는 경우에만 상환한다▲가명 금전신탁 채권은 상환기일까지 가명을 허용하되 상환은 실명을 밝히는 경우에만 한한다 ▲상환일 또는 來期日이후 1개월이상 인출하지 않거나 실명화하지 않을경우 相續稅率에 準하는 過徵金을 징수한다는 것등이다.

「學生운동 紀念日」

民韓 對政府건의안

民韓黨은 14일 高在淸·林在正의원등 소속의원 81명의 이름으로 光州학생운동이 일어났던 11월3일을 「학생독립운동 紀念日」로 제정토록하는 對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光州학생독립운동은 3·1독립운동과더불어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야 할 기념일』이라고 강조하고 『제2代국회에서 11월3일을 학생의날로 제정, 기념식을 가져왔으나 지난 73년 維新이 시작되면서 부당하게 폐지되었으므로 이제 새롭고 당당한 이름으로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鄧小平、주요黨職 장악

中共 1 中全會 정치국원·상무위원·黨規委주석에

華國鋒 정치국서 축출

胡耀邦 당총서기 뽑혀

◇中共黨主席 胡耀邦이 黨제12기全國代表大會(12全대회) 도중 최고 실권자인 鄧小平과 담소하고있다。 【北京11日AP電送=聯合】

【北京AP·UPI=聯合】 中共黨제12기전국대표대회(12全大會) 폐막에 이어 12일 개최된 제1차中央委전체회의(1中全會)는 새 정치국과 서기국및 군사위의 인선작업을 마침으로써 중공당 61년사상 최대규모의 주요개편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1中全會의 인선과정에서 중공 최고실력자 鄧小平은 정치국원과 中央委상무위원에 선출되고 黨規律위주석으로 재선됨에 따라 주요당직을 모두 차지했다. 鄧이 주도하는 개혁세력에 의해 밀려날것으로 알려졌던 前당주석 華國鋒은 예상대로 정치국과상무위에서 축출되어 중앙위원직만 유지하고 있다. 鄧의 심복인 胡耀邦 역시 정치국원과 상무위원에 선출되고 3천9백만 당원을 가진중공당을 관장하는 總書記로 뽑혔으며 수상 趙紫陽도 정치국상무위원으로 선출됐다.

한편 黨元老인 葉劍英(85) 陳雲(77) 李先念(77)은 中央委에 선출된데 이어 정치국 상무위원에도 선임되어 이들을 당일선에서 퇴진시키려던 鄧의 계획은 일단 좌절된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국상무위원회는 종전의 위원수를 1명줄여 6명이 됐으며 華國鋒외에는 모두 유임됐다.

1中全會는 이밖에 정치국후보위원과 서기국후보위원도 선출했다.

이에앞서 당총서기 胡의사회로 열린 12全大會는11일 1백32명의 중앙규율위원과 1백38명의 中央委후보위원을 선출한후 이大會에 참석한黨대표 1천5백74명의 黨歌합창으로 지난 11일간의 회의를 공식폐막했다고 12全大會 대변인인 문화부장 朱穆之가 발표했다.

朱는 이날 대회결산보고에서 中央委는 정위원2백10명중 과반수가 교체되고 3분의2이상이 60세미만의 소장층으로 구성됨으로써 이번 회를 계기로 활성화됐다고말했다.

그는 또 고령의 원로당원들이 1백72명으로 구성된 중앙자문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中央委에 남아있는 고령자들은 16명에 지나지않는다고 덧붙였다.

【北京AP=聯合】 12全大會제1차中央委전체회의(1中全會)에서 12일 실시된 요직인선은 다음과 같다.

▲政治局常務委員=胡耀邦 鄧小平 趙紫陽 葉劍英 李先念 陳雲
▲政治局員=萬里 習仲勳 王震 韋國淸 烏蘭夫 方毅 鄧小平 葉劍英 李先念 陳雲 鄧穎超 李德生 楊尙昆 楊得志 余秋里 宋任窮 張廷發 胡耀邦 趙紫陽 聶榮臻 倪志福 徐向前 彭眞 廖承志
▲政治局후보위원=姚依林 陳慕華 秦基偉
▲書記局
▲總書記=胡耀邦
▲書記=萬里 習仲勳 鄧力群 楊勇 余秋里 谷牧 陳丕顯 胡啓立 姚依林
▲書記후보=喬石 郝建秀
▲중앙군사위 主席=鄧小平 副主席=葉劍英 徐向前 聶榮臻 楊尙昆

日、財政비상 宣言

負債증가 억제·經濟회복 拍車

스즈끼、來16일발표

【東京UPI=聯合】 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은 오는16일 일본이 재정비상상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한편 정부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경제회복에 박차를가하기위한 종합경제대책을 제시할것이라고 12일 정부관리들이 밝혔다.

스즈끼 수상은 금년말의民黨총재선거와 내년의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재정적자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관리들은 경제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기昇給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봉급인상을 억제할것임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모스크바 電話재개

自動은 아직도不通

【모스크바AP·UPI=聯合】 지난 10일 완전두절, 西方측으로하여금 크렘린에서 정치적 변이 일어난것이 아닌가 추측케했던 모스크바의 送·受信국제전화선이 12일 전면재개됐다고 소련교환수들이 밝혔다.

이들은 이제 해외로부터의 통화수신은 물론 모든 서방국에대한 송신통화도 가능하게됐다면서 그러나 12일현재 『회로가 정체』되어있어 일부 통화자들에게만 통화를 허용하고있으며 13일이나돼야 제대로 소통이 될것이라고말했다.

이어 모스크바 교환수들은 아직 얼마동안은 자동직통전화가 불통될것이며 따라서교환수들에 의한 국제전화만이 가능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련은 이달초 기술상의 이유를들어 西歐및 北美, 그리고 일본과의 자동직통전화선을 폐쇄일부 국가들에 최소한 2년간 이같은 불통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통고했었다.

그러나 서방외교관들은 이같은 국제전화선 폐쇄조치가 소련국민과 서방에서 살고있는 소련교민들과의 접촉을 막기위한 소련보안당국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早期검정등 11월까지 결정

日첫교과서 審議會、文部省통보키로

【東京14日=宋孝彬특파원】 오가와(小川)문부상은 歪曲교과서 파동으로 韓·日、日·中共간에 심각한 물의를 빚은 이후 처음으로 14일하오3시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 사회과部會를소집, 歪曲교과서是正에대한 諮問을구했다.

이심의회는 오가와문부상의 요청에따라 ①검정기준에 「隣國諸國과의 우호협력을 강화, 교육에 반영한다」는 새기준을 추가하고 ②3년주기의 검정기간을 1년앞당겨 85년부터 사용될 교과서부터 歪曲부분을 시정토록한다는 심의의 회신을 마련키위한것으로 심의회는 그결과를 오는 11월에 오가와문부상에 제출할예정이다.

앞으로 오가와 문부상은 심의회의 이같은 회신에 따라 문부성에서 발행하는 廣報를 통해 한국과 중공이 문제삼았던 歪曲대목에 시정하는 내용의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교육장에서는 歪曲대목을 바로잡아 학생에게 가르치도록할 방침이다.

中蘇 내달國境會談

중공과 소련은 양국간의경색된 관계를 누그러뜨리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달중 국경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北京의 외교소식통이 12일 내비쳤다.

양국간의 국경회담은 지난 79년 시작됐으나 그해 겨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군사개입과 관련하여 중단된바 있다.

소식통들은 이 회담이 본래는 차관급접촉이었으나 내달재개될 회담은 당분간 차관보다 낮은 정부관리들간의 접촉으로 이뤄질것이라고 전망했다.【北京=UPI】

홍콩 최대反日규탄

1만여명의 홍콩시민들은 오는18일 일본의 滿洲침략의 구실이된『瀋陽사건』51주년을 맞아 빅토리아공원에서 최대규모의 反日대회를 갖고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한편 일본상품불매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대회조직위원장인 체토·와 홍콩교원노조회장이 12일 밝혔다.

채토·와위원장은 이날 이 일본규탄궐기대회가 홍콩경찰의 승인하에 홍콩教員勞組·학생연맹·勞組연합회등을 비롯한 1백여개단체의 후원을 얻어 개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홍콩=UPI】

WCC、인종차별 反對團體에 특별지원

20國 50개단체받아

【파리AP=聯合】 세계교회협의회(W·C·C)는 西南아프리카의 나미비아해방기구와 20개국 53개인종차별반대운동단체에 대해 48만9천5백달러를 특별기금에서 지원했다고 제네바에서 발행되는 멘수엘誌가 8일 보도했다.

이스라엘軍、레바논 占領地서 越冬준비

軍事基地등 건설

지난6월6일 레바논 침공을 단행한 이스라엘軍이 레바논에서 금년겨울을 지내기위해 월동준비에 들어갔다.

이스라엘 육군참모총장 라파엘·에이탄장군은 11일 육군방송을 통해 레바논 주둔 이스라엘軍이 레바논내 점령지역에서 도로보수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군사기지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예루살렘=AP】

中共人口 10억7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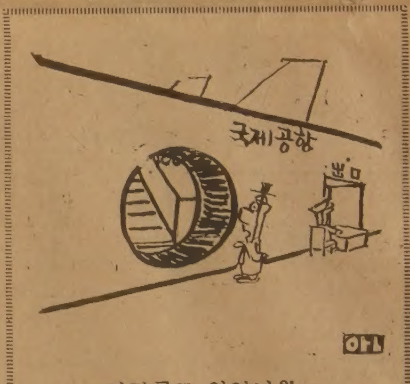
현재 중공의 인구는 10억을 넘어섰다고 중공부수상萬里가 밝힌 것으로 北京의 일본소식통이 12일 전했다.

萬里는 이날 다자와·기찌로(田澤吉郞)일본농수상과의 회담에서 지난 7월1일의 공식인구조사결과 중공의 인구가 10억7천6백만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공당국의 고위책임자가 금년도 인구조사결과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萬里는 중공의 인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있다고 우려하면서 인구증가속도에 제동을 걸지않을경우 서기2천년까지는 12억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北京=AP】

社会漫評



이런곳도 있었나?!

地平線

화석은 지구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극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것은 지구상의 온갖 삶들이 거쳐온 과정과 그것이 지닌 뜻을 역사적으로 밝힐수있고 또 화석이 쌓인 시대와 그 환경을 알아낼수 있게한다. 즉 땅속에 갇혀진 생명의 기록인 셈이다. ▼한데 흙이 지구상의 생명의 기록은 10억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갈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으나 근자에 이르러서는 30억년 내지 35억년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되어 인류역사에 비겨서 너무나 아득한 생명의 기원에 현기증을 느낄 지경이다. 이와같은 화석을 연구하는 학문이 다름아닌 고생물학이다.▼화석을 다루는 고생물학은 옛날의 태고를 다루는 학문인가 하면 반드시 그런것만도 아니다. 공업화의 진행에 따라 석유를 비롯한 석탄, 석회암, 연, 아연등속의 광물자원을 찾아 내는데 결정적인 길잡이가 되니 그 경제적 중요성도 무시할수가 없다.▼그와같은 경제성은 차치하고라도 경남 합천군에서 약1억년전 것으로 생각되는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흥미롭다. 공룡이란 중생대에 활개를 치던 지상최대의 파충류이다. 초기의 것은 작았으나 최성기엔 지상을 걸어다니던 짐승 가운데서 가장 큰것이었다.▼중생대는 약 1억년 이상 계속되었고 지금으로부터 7천만년전에 끝났다. 이 중생대 최후의 시대인 백악기 무렵까지만해도 여러가지 종류의 공룡이 득실거렸으나 그 다음에 어느 시기부터 갑자기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중생대의 뒤를 이어 신생대의 막이 열린다. 오늘에 이르는 신생대는 가장 새로운 지질시대로서 포유류의 시대로도 불린다.▼신생대지층에서는 씻은듯이 공룡의 자취는 볼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공룡이 전멸하게 된것은 백악기에 시작되는 지각의 변동으로 산이 생기면서 그것이 서식하던 저지대가 줄고 기후또한 갑자기 바뀌어 서식물의 종류마저 달라진데 원인이 있다고 추정을 한다. ▼그러나 한때 지상에 군림했던 무적의 공룡이 어느날 갑작스럽게, 그것도 씨하나 남기지 않고 전멸한 까닭을 설명할수 있는 학설은 아직 없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1억년전 그당시 이땅 합천에 공룡이 어슬렁거렸던 정경이란 상상만 하여도 유쾌하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이제부터 관광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

코라메관광(KORAME)이 탄생되었읍니다. 계속해서 캐나다·미국등 각국유명 처소를 찾아 교민여러분을 모시고 유람 예정이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정및 요금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수도 있읍니다.
★기타 관광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환영합니다.

1. 당일관광 (기간 : 9월15일~10월15일)

	관광지	출발	도착	집합	요금	비고
월	30,000 ISLANDS	9 : 00	20 : 00	코라메사무실	$59	관광안내및 왕복교통
화	1,000 ISLANDS	9 : 00	21 : 00	코라메사무실	$59	점심, BOAT 유람비용
수·토	NIAGARA FALLS	10 : 00	19 : 00	코라메사무실	$55	등 포함

*출발은 7인 이상일때 한함.
*개인별관광(4인이하)은 별도문의 바람
*신청마감 : 각 출발일 이틀전

2. 단풍맞이 특별관광—1박2일 (기간 : 9월23일~10월8일)

	관광지	출발	도착	집합	요금	비고
매주	30,000 ISLANDS &	목	금	코라메사무실	$98	관광안내및 왕복교통, 출발일 점심
목·금	ALGONQUIN PARK	9 : 00	19 : 00		(일인당)	BOAT유람, 숙박, PARK입장료포함

*출발 : 10명단위 *숙박 : 2인1실 *신청마감 : 출발일 이틀전

649A BLOOR ST. W.
TOR., ONT. M6G 1L1 ☎ : 535—0853

코라메 관광(주)
세일여행사옆 사무실

김 연태
함 영호
방 충극

대표 김 연태

한국, 막판서 濠에 진땀

延長 15회末 趙城玉 2루타
柳斗烈 희생打 決勝點올려

27회 세계野球선수권대회 (제10일)

한국은 정상을 가로막았던 벽 濠洲를 천신만고끝에 쓰러뜨리고 7승1패를 기록, 日本과 우승을 놓고 한판을 벌이게 되었다. 한국은 14일 상오 잠실구장서 벌인 濠洲와의 연장 계속경기서 15회말 趙城玉이 1루 베이스를 스치고 나가는 2루타로 찬스를 만들고 6번 柳斗烈의 희생플라이로 3루주자 趙城玉을 홈에 불러들여 7-6의 결승점을 올렸다. 정상을 향한길은 너무도 험했다.

13일 최하위팀 濠洲와맞선 한국의 선발투수 崔東原은 5회초 연속4안타로 녹·아웃되었으며, 초반 2개의 홈런으로 기선을잡았던 한국은 9회초까지 5-6으로 역전 리드를당해 좌절의 수렁에빠졌다.

한국에 숨통을연선수는 동아대3년생인 2번 趙城玉이었다. 9회말 왼손타자의 잇점을 활용, 기습번트 안타로 살아나간 趙城玉은 4번張孝祚의 중전적시타로 6-6의 동점을만들었고 14일 연장계속경기 15회말선도 1루베이스를 스치고나가는 2루타로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

柳斗烈은 濠洲와의 경기서 2회말 선제솔로호머를 날렸으며 15회말 굿바이희생타로 승리를 결정했다.

美國은 최종전에서 1회말 1개의 3루타를포함한 연속 4안타 1포볼로얻은 3점의 리드를지켜 自由中國에 3-2로 승리, 自由中國과 6승 3패로 공동 3위를 마크했다.

◇惡夢의 對濠戰 마무리홈인 15회말 1루베이스를 스치는 2루타를치고나갔던 2번趙城玉이 6번柳斗烈의 희생플라이로홈인, 결승점을올리고있다。

한국-濠洲

이것이 과연 대회첫우승을 노리는 한국팀의 전력인가. 상대수비 실책없이는 득점이 어려운것이 한국야구의 공격력이다. 만능스타 金在博도 대(大)타자 張孝祚도 결정적인 고비에서 범타로 후퇴, 한국의 승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승7패로 전경기일정을 마친 최하위팀 이탈리아가 우승결정전에나선 한국과 일본을 물리쳤듯이 2승6패의 하위팀 호주는 한국을 끈질기게 물고늘어져 곤욕을 치르게하며 야구라는 게임의 아이러니를 실감케했다.

12회말 1死후 한국은 6번柳斗烈이 좌전안타, 7번朴鍾俊이 포볼, 8번鄭求善이 유격수 실책으로 살아나가 만루의 찬스를 맞았다. 승리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국팀 최고타율의 9번韓大化가 호주구원투수 휴지스의 제3구를골라 스퀴즈·번트. 오른손투수 휴지스는 몸을기울인채 타구를 잡아 홈을향해달리는 3루주자 柳斗烈을 잡아냈고 포수의 재빠른송구로 韓大化역시 1루에서 병살되고 말았다.

찬스뒤에 찾아온 13회초의 2死만루 위기에서는 컨트롤 좋은 3번째 구원투수 任昊均이 스트럭·아웃으로 실점을 막아냈다.

15회말 선두타자로나온 趙城玉은 호주의 2번째 구원투수 린치와 씨름 끝에 1-3에서 제4구를 통타, 1루베이스를 스치듯 빠져나가는 안타를 때리고 2루에 슬라이딩,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다. 린치의 경원과 컨트롤난조로 李海昌, 沈載元이 차례로 베이스를 차지, 만루를 이룬 가운데 6번 柳斗烈은 린치의 제4구를 레프트필드로 날려 희생플라이로 결승타점을 기록했다.

◇제10일 전적

◆잠실
호주 000 050 010 … 0 — 6
한국 012 000 021 … 1 — 7
〈15회연장〉
▲호주투수=엘크슨·휴지스(9회) 린치(13회) 포수=마텔얀 ▲한국투수=崔東原 吳泳日(5회) 金始眞(6회) 任昊均(10회) 포수=沈載元 ▲홈런=柳斗烈(2회) 李海昌(3회·2점·이상한국) ▲안타=호주 17-13 한국

자유중국 000 000 011 — 2
미국 300 000 00× — 3
▲홈런=趙士康(8회·자유중국) ▲안타=자유중국 10-7 미국

◆서울운
네덜란드 000 200 240 — 8
도미니카 000 000 020 — 2
▲안타=네덜란드 10-7 도미니카

◇제9일전적

◆서울운
미국 500 420 002 — 13
이탈리아 000 200 0 — 2
〈7회콜드 게임〉
▲홈런=롱(1회·만루) 스타인백(4회) 버지(4회) 브럼리(7회·2점·이상미국) ▲안타=미국 12-5 이탈리아

◆잠실
도미니카 001 000 000 — 1
자유중국 001 001 01× — 3
▲안타=도미니카 4-8 자유중국

◆인천
네덜란드 003 000 010 — 4
캐나다 410 012 00× — 8
▲홈런=스미트(3회·3점·네덜란드) 존·이반(5회·캐나다) ▲안타=네덜란드 5-10 캐나다

◇세계아마야구 전적

	한국	일본	자유중국	미국	캐나다	도미니카	네덜란드	파나마	호주	이탈리아	승	패
한국	★		○6-0	○2-1	○5-1	○3-0	○11-0	○4-2	○7-6	×1-2	7	1
일본		★	○3-2	○4-1	○18-7	○6-3	○5-0	○7-2	○7-1	×2-3	7	1
자유중국	×0-6	×2-3	★	×2-3	○17-11	○3-1	○6-4	○4-3	○11-8	○2-0	6	3
미국	×1-2	×1-4	○3-2	★	×0-1	○5-1	○11-3	○7-6	○14-4	○13-2	6	3
캐나다	×1-5	×7-18	×11-17	○1-0	★	×8-18	○8-4	○2-0	○7-4	○10-6	5	4
도미니카	×0-3	×3-6	×1-3	×1-5	○18-8	★	×2-8	×2-3	○10-5	○6-5	3	6
네덜란드	×0-11	×0-5	×4-6	×3-11	×4-8	○8-2	★	○6-5	×2-6	○12-11	3	6
파나마	×2-4	×2-7	×3-4	×6-7	×0-2	○3-2	×5-6	★		○8-4	2	6
호주	×6-7	×1-7	×8-11	×4-14	×4-7	×5-10	○6-2		★	○6-4	2	6
이탈리아	○2-1	○3-2	×0-2	×2-13	×6-10	×5-6	×11-12	×4-8	×4-6	★	2	7

한국, 가볍게 1勝

세계女子排球 西獨을 3-0 셧아웃

【아르키파(페루)=聯合】 한국여자대표팀은 14일상오(한국시간)이곳 시립체육관에서거행된 제9회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2일째예선E조첫경기에서 1시간10분만에 西獨을 3-0으로완파, 서전을장식했다.

또 한국과 같은E조의 브라질도 파라과이를 3-0으로 가볍게눌러 1승을 올렸다.

한국은 이날 金貞順, 金英淑, 李恩敬, 朴美姬, 鄭琴仙, 李榮宣을 스타팅멤버로 기용했으나 첫세트초반 장신西獨의 블로킹에 고전했다.

한국은 1세트초반 5-5의 시소에서 金英淑을 빼고 郭宣沃을 기용, 오른쪽공격이 살아나고 李恩敬의 왼쪽공격이 불을뿜어 13-8로 질주한후 상대범실2개로 15-8로 승리했다.

제2세트에 접어들어 한국은 朴美姬 李榮宣의 중앙속공과 블로킹이 호조를 보여 10-0으로 앞선뒤 郭宣沃·李恩敬의 오픈공격을살려 15-4로 쉽게 끝냈다.

마지막 3세트에서도 한국은 15-6으로 쉽게 마무리지었다.

◇제2일전적
▲1회전 전적 (E조)
한국 3 (15-8 15-4 15-6) 0 서독
브라질 3 (15-1 15-1 15-7) 0 파라과이

日, 외국인指紋채취 強化

在日한국인등 "人權침해다" 反撥

【東京=聯合】 인권침해라고 말썽을 빚은 일본정부의 외국인 지문채취가 오는10월1일부터 오히려 강화돼 在日한국인의 반발을 사고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법무성은 외국인등록증을 경신할 경우 지난8년간 생략해온등록원장의 지문채취를 10월1일부터 부활시킨다.

결국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지문채취거부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가운데 오히려 지문채취회수가 늘어난 셈이다.

법무성측 『신규등록때 채취한 지문은 경신의 경우 다시 채취하지 않아도된다』는 74년의 지시가 잠정조치였다고 우기고 있으나 『지문채취를 인권침해』라고 철폐운동을 벌여온 在日한국인들은 『이번 조치는 지문제도와관리의 강화』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88서울올림픽때 「프로」參加 검토

국제테니스聯

【아카풀코(멕시코)AP=聯合】 국제테니스연맹(ITF)은 15일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2일간 연례회의를 열고 88년서울올림픽에서 세계우수프로테니스선수들이 경기를 할수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方大斗 銅메달

世界그레코로망레슬링 헝거리에 判定勝

◇方大斗선수

【카토비체(폴란드)AP=聯合】 한국의 方大斗(조폐공사)는 12일 폴란드의 카토비체에서 폐막된 82년도 세계 그레코로만형 아마레슬링선수권대회 플라이급(52kg)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方大斗는 이날 4회전에서 루보미르·케코프(불가리아)에게 4-0으로 패했으나 5회전에서 스테판·마리안(루마니아인)에게 판정으로 이긴뒤 3·4위전서 헝가리의 라요스·라츠에게 판정승(10-6),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은 종합점수 4점으로 쿠바와함께 10위에머물렀다.

▲종합순위=①소련 46점 ②폴란드 31점 ③불가리아·루마니아 30점 ⑩한국·쿠바 4점

▲각국 메달획득수

팀	소련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유고	헝가리	터키	한국	쿠바
금	4	3	1	1	1	0	0	0	0	0
은	1	1	3	2	0	1	1	1	0	0
동	2	1	1	3	0	1	0	0	1	1

주간女性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September 20 - October 2 SPECIAL

Halls Prepack	7 boxes x 20 count + 10 free	$37.70
Will-O-Pack	12x1.69	11.88
Fruitella	36x.25¢	4.95
Chocolate Chunks	120x.15	10.29
Beechnut Cough Candies	24x.30	4.40
Fruit Slice Pops	10x.48	3.16
Tic Tac	24x.35	5.30
Astro Pops	36x.25	6.12
Space Fleet	48x.25	7.65
Lola	24x.33	4.19
Y & S Twizzlers	24x.40	6.39
Y & S Nibs	24x.30	6.39
Y & S Goodies	24x.30	6.39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4 LAWRENCE KEELE CALEDONIA DUFFERIN

내고향 통닭집

◎예전의 분위기가 아닌 새로 단장한 통닭집에 한번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날로 성장하고 있읍니다.

메 뉴

오뎅·백반	$3.75	빈대떡 4개	$2.—
우동	$3.—	짜장면, 곰탕	$3.75
냉면	$4.—	갈비백반	$5.75
통만두	$3.—	생선찌개백반	$4.75
김밥	$2.95	통닭	$5.95
		½닭	$3.75

⊙배달 가능합니다.

658½ BLOOR ST. W. 537-0432

씨알한국인학교

특수 프로그램

★중등부 과 목 : 영 어 (캐나디안 정규교사가 지도함)
수 학 (Commodore 콤퓨터64 사용)
음악이론 (콘서바토리 시험을 위한것)
고전무용 (전문적인 레파토리 지도)
수업료 : 한 과목당 1년에 $140, 두 과목당 1년에 $260

★초등부와 유치부
과 목 : 영어,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태권도
무용, 스케이트와 축구(이상 8과목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수업료 : 1년에 두 과목당 한학생 $180, 두학생 $350, 세학생 $450
버스비 : 두대의 학교 버스를 운영합니다.
신청하실 곳은 ☎ : 441-2986 여정자 선생.
9월20일까지 신청마감.
1년에 한학생 $135, 두학생 $260, 세학생 $350

시간과 기간 : 매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9월25일부터 내년6월까지
등 록 : 9월25일 개학날 당일 9시부터 등록 접수하며 위의 학비는 2번의 Post Date 수표로도 접수합니다.

TORONTO BOARD OF EDUCATION

씨알한국인학교

한국어 프로그램(무료)

★중고등부 초보반 한국어를 처음 공부하는 어린이
중급반 이미 한국어를 공부한 어린이

★초등부 초보반 A 1, 2학년으로 처음 공부하는 어린이
초보반 B 1, 2학년으로 이미 공부한 어린이
중급반 A 3학년 이상으로 처음 공부하는 어린이
중급반 B 3학년 이상으로 이미 공부한 어린이

★유치부 유치반 4살 이상 어린이

장 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ndall Ave. Toronto
시 간 : 9월25일 개학
매 토요일 9 : 30분부터 12시까지(2시간30분 수업)
학교버스 : 씨알학교 특수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성인영어반 : 토론토 교육국의 후원으로 발음과 단어, 읽기등에 중점을 두는 성인 영어반을 같은 시간에 합니다.

한글세대作家 尹興吉의 「歪曲列島」縱橫記

내가 처음 본 日本 <8>

뿌리를 말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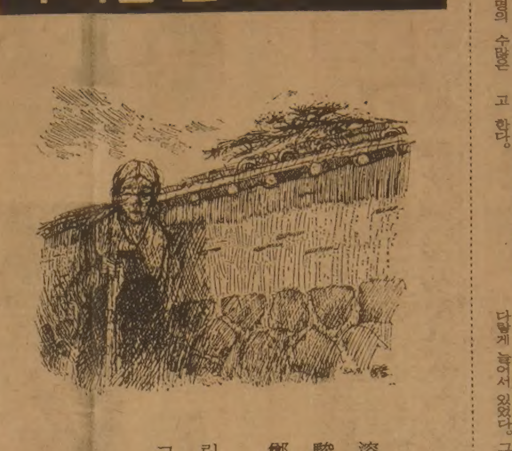


그림 鄭駿溶

홋까이도에서 다시 할복편을 이용하여 오오사까(大阪)에 떨어졌고 거기서 일본 국제교류기금과 합의된 일정을 소화한다음 나라(奈良)행 전철에 올랐다. 그때부터 나는 지독한 감기몸살을 삼탐째 앓기 시작했다. 어금니가 솟으면서 편도선이 부어 침을 삼키기가 거북하고 신열과 두통에 시달리면서 혀가 제멋대로 풀어져 40년 가까이나 사용해온 모국어를 발음하는데도 무던히 애를 먹어야만 했다. 담장 주저앉고 싶은 곤핍한 몸뚱이를 나는한양방에서 지은 한보따리의 약으로 간신히 달래고 있었다. 단기간에 장거리를 뛰는 여행자체가 워낙 무리인데다가 욕심사납게 1인3역의일거리까지 맡아 유명무명의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라고 도무지 쉴 겨를이 없었다. 수면부족에 시달리면서 아침이면 코피를 쏟았고 며칠 사이에 부쩍 늘어난흰머리를 거울속에서 발견할수가있었다.

녹초가 된 채로 나라의 선투트 호텔로 들어서다가 문득 귀에 익은 경상도 사투리를 듣고 나는 깜짝 반가왔다. 20여명을 헤아리는 일단의 한국인들이 호텔 로비에 몰려서서 와자지껄 떠드는 중이었다.

무작정 반가운 김에 나는 그들한테 접근하려다가 멈칫 물러서고 말았다. 그들은 세 개의 대형 상자를 에워싸고 있었다. 상자 속에서 꺼낸 테니스 라켓이 그들 모두에게 골고루 배급되었다. 먼저 배급받은 사람들은 삼삼오오 끼리끼리 모여 서로 자기것과 상대방의 것을 비교해가며 요란한 품평회를 벌이느라고 아무 정신도 없었다. 그 광경을 보고 다른 외국 손님들은 아마 한국은 테니스 라켓을 구경조차할 수 없는 나라이거니 생각했을 것이다. 외국에서 만난 내 동포들이 나는전혀 자랑스럽지가 않았다. 나하고 정면으로 마주친 어떤 중년신사의 가슴에는<慶州市>라는 표찰이 버젓이 붙어 있었다.

그 이름부터가 어쩐지 한국적인 냄새를 풍기는 나라시는 곳곳에 널린 고적과 유서 깊은 사찰들로 이내 우리의 경주를 연상케 만드는 곳이다. 실제로 경주시와 나라시는 자매결연까지 맺고 있다고 한다.

나는 五重塔으로 유명한 고부꾸지(興福寺)를 거쳐 大佛殿과 大鐘으로 유명한 도다이지(東大寺)로 향하는 길에 문득 수필 한 대목을 떠올렸다. 작고한 문예비평가인 가메이(龜井勝一郎)의 수필집 大和古寺風物誌에 나오는 귀절이다. 가메이는 나라 근교의 민가에서 허물어진 흙담 토담을보고 일본도 아니고 신라도 아닌 백제를 느낀다. 그는 고도의 餘香을 음미하다가 꼭 있어야할 뭔가가 거기에 빠져 있음을 깨닫는다. 한탁을 잃은 가난한 노파다. 그는 곧 검정치마에 흰저고리 차림의 한국여인이 토담을 따라 걸어오는 환상을 본다. 그러자 비로소 완벽한 폐허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진다. 그는 약꾸시지(藥師寺) 주변의 불상군 속에서 백제인 일본에 건너와 대가람을 건립한 수많은 백제인들의 후예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렇다. 일본의 고대문화의 꽃를 오리인 나라와 교오또(京都) 일대의 빛나는 유적과 유물들은 한반도 특히 백제문화하고 분리시켜서는애당초 이야기가 안 된다. 나는 고고학이나 한·일간의 문화사쪽에는 전혀 문외한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대뜸 느낄수가 있었다. 내가 본 것은 가메이가 말한 약꾸시지하고는 엉뚱한 방향에 있는담이었다. 해묵은 가옥들로 이루어진 고급주택가의 골목길 양쪽에 회칠을한 담벽이 꼭대기에 기와를 얹은채로 기다랗게 늘어서 있었다. 그곳을 지나면서 나는 일본땅임을 잠시 잊고 마치 고유의 건축양식이 잘 보존된 우리나라의 어떤 양반동네를 거니는듯한 착각에 빠질 지경이었다.

나라와 교오또를 두루 여행하는 동안에 나는 건축물의 구조에서 혹은 불상이나 벽화에서 한국문화의 자취를 무시로 찾아내곤 했다. 그런데 전문학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일본인들이나 외국인관광객들이 손쉽게 접할수있는 설명문또는 안내책자에는 한반도의 영향이 소홀히 취급되어있어 매우 섭섭한 기분이었다. 내가 목격한 것들 가운데서 그 뿌리를 명백히 밝혀놓은 문화재는 호류지(法隆寺)의 백제관음상, 아스까지(飛鳥寺)의 불당과 부처, 고류지(廣隆寺)의 백제전

기와 없은 담벽은 우리 양반동네 거니는 착각까지…

래 彌勒菩薩半跏思惟像 그리고 백제 瓦當과 아스까문화의 와당을 나란히 대비시켜 그것들이 똑같은 무늬임을 알리는 정도가고작이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운 호류지의 저 유명한 金堂벽화는 화재로 진품이 소실되고 사진판만 전시중이었다. 그 걸작이 고구려출신으로 백제를 거쳐 일본에 건너간 화가 曇徵의 솜씨라고 밝힌 설명문을 찾는데 나는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담징이란 고유명사는 오늘날 명화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까지 轉化되어 극장에서 일류 예술가들의 그림이나 자수로 화려하게 장식된 막의 이름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담징의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본떠 그것을 돈쬬(緞帳)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백제 전래의 미륵상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고류지 안에 앞뒤로 진열되어 있는 점이었다. 전자는 철제제요 후자는 赤松으로 조각한 목제라는 차이뿐,후자가 전자를 그대로 모방한 복제판이었다. 그런데 전자가 그냥 국보인 반면에 후자는 일본의 국보 제1호로 중요시되고 있음을 보고 나는 백제의 미륵이 객지에 나와서 고생한다고 생각했다.

아스까지의 住職인 야마모또(山本)스님은 범상한 승려가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받는 二絃琴의 기능보유자다.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듣고 그는 마치 인정에 주린 사람처럼 나를 반기면서 언제까지든 붙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는 학자들의 연구가 엉터리라고 주장한 다음 자기가 모든걸 진실대로 죄다 말해 주겠다고 나섰다. 그는 일본인들이 우리의 세종대왕처럼 받드는 쇼도꾸(聖德)태자가 백제와 고구려에서 온 두분 스승을 모시고 공부한 곳이 바로 아스까지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아스까지의 법당과 불상을 지은 백제출신의 위대한 예술가 도리(鳥 또는 止利)佛師에 관해서도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아스까시대에 세워진 사찰들치고 조각가이자 건축가인 도리와 그 제자들의 손이 안간데가 거의 없다는이야기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스까지의 남쪽산밑에 있는 마을을 가리켰다. 그 마을에서 도리가 살았으며 도리가 기와를 굽던 가마들이인근 여러곳에서 최근에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나를 통하여 자신이 품고있는 깊은 우의가 한국인들한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노승의 꿈이 죽기전에 아스까지를 원래의 거창한 규모대로 복원시키는 것이었으므로 나는 일금 5천엔을 성금조로 전하고는 해질녘에야 야마모또스님과 작별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16>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 ⑲

궁핍에 햇빛이 넘치는 동네였다. 「아아, 햇빛이」 오목이는 그 동네에 넘치는 햇빛때문에 문전마다 괄시를 받으면서도 히히 웃을 수가 있었다. 아무리 구박을 하고 따돌려도 악착같이 그 햇빛 넘치는 산동네에 발붙고 뿌리 내리리라.

꽃과처럼 어린 아기가 햇빛을 실컷 쬐고 차츰 잡초처럼 질기고 억세질 생각을 하면 절로 웃음이 나왔다.

오목이는 아기와 그 작은 배조차 채워주지 못한 가난보다도, 태어나자마자 아비의 의심때문에 구박 받고 눈치봐야했던 아기의 고약한 운명보다도, 천지만물에 고루 넘치되 공짜인 햇빛조차 넉넉히 쬐주지못한 게 훨씬 더 아기에게 미안했었다.

오목이는 오랫동안 굶주렸던 햇빛이 넘친다는 것만으로 그고장이 좋았고 그고장에서의 앞날까지를 낙관하려들었다.

그러나 햇빛말고는 넉넉한 거라곤 아무것도없는 동네였다. 찌그러진 상자각모양의 간살 좁은 집들이 루핑아니면 슬레이트 조각으로 간신히 하늘을 가리고서있었고 불끈불끈한 골목길은 사람이오로지 일방통행밖에 못하게좁아터졌고, 지칠대로 지쳐뵈는 행인이 손에든거라곤 겨우 봉지쌀이나 새끼에꿴 한두장의 연탄이 고작이었다.

돈드는것에 넉넉지못한건 가난의 피할수없는 운명이라지더라도 돈안들어도되는 마음씨까지 그렇게 좁아터질건 또뭘까? 오목이는 동에 업은 아기때문에 번번이 셋방을거절당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건 그동네사람들에대한 원망하곤달랐다. 차라리 연민이었다.

「밥 술 얻어두는 게 좋을거야」

앞서가던 일환이가 구멍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추며 말했다. 구멍가게 속에선 둥근 통속에서 호빵이 김을 무럭무럭 올리고 있었다. 점심때가 겨운 시간이었다. 일환이는 부드럽고 다정했다.

「영감님도 뜨끈한 빵으로 요기 좀 하십시다」

일환이는 복덕방 영감까지 구멍가게안으로 불러들였다.

오목이는 그런 일환이가 자랑스러웠다. 하나같이 인색하고 옹색한 사람들속에서 홀로 넉넉할수있는 일환이가 거인처럼 우러러뵈었다.

구멍가게속의 하나밖에 없는 의자는 당연히 그녀차지였다. 그녀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따뜻한 호빵을 먹었다. 일환이와 복덕방 영감도 선채 호빵으로 요기를 했다.

산동네를 거의 한바퀴 다 도는 동안 영감의 장마른 다리는 초라한 홑바지속에서자주 떨었고 얼굴은 푸릇푸릇 오그라 들었었다.

개걸스럽게 호빵을먹는 영감에게 난로위에서 끓는물을 손수 권하는 일환이도 오목이 보기에 좋았다. 호빵맛개로 딴사람처럼 화색이 돈 영감의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아주머닌 여기서 쉬고있는게 좋겠소. 보아하니 아기도 어리고 날씨도 매운데」

「그럼 그럴까요?」

오목이는 영감의 마음씨가 고맙기도하고 구멍가게 속이 편키도해서 이렇게 말했다.

「안돼, 여보, 당신이 살집을 당신이 안보고 우리끼리 어떻게 정하나. 그리고 사내녀석은 막 길러야해」

「그러문요, 그러문요」

그녀는 아기에 대한 일환이의 최초의 관심이 고마와서 감지덕지 아기를 둘쳐업었다.

한국일보 詩壇

구름처럼

진 병 주

가슴 앓이 소쩍새
애잦는 주막밖에
깨무는 아픔이라
설친 잠 뒤치더니

이 아침
하늘을 보자
내다 너는 흰 자락.

하룻밤 가슴 태워
강산(江山)을 잉태하고
뫼뿔에 집을 지어
한 세상 사자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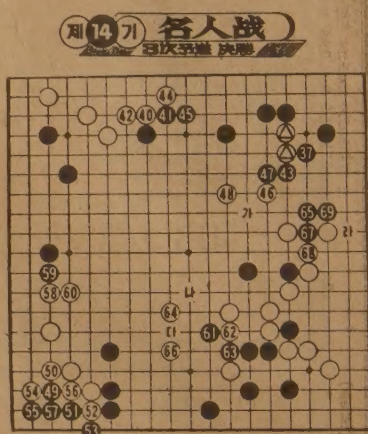
눈 뜨자
바람에 쓸려
편지길도 망망타.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2局 第5譜 40~69 (각4시간·덤5집반)

白 (初段) 崔珪昞
黑 (6段) 徐能旭

앞의譜에서 黑43을 당한 崔초단은 심적동요를 어쩌지 못했다. 원래 白



崔初段계속 亂調

40 42는 黑44의 응수를 예측한 정석. 다시말해서 수표쪽을 움직이기전에 선수를 활용하자는 속셈이었는데 徐6단이 그걸 들어줄 리가 없고 또黑43의 일격은 白에게 통대한타격, 이것으로 돌이킬수 없는 열세에 놓였다.

崔초단은 내친걸음에 白44로 젖히고 白46, 그러나 이것도 속수란 평이다. 이왕 이곳을 둔다면 黑「가」에 두어 놓고 白47을 보아야 정수였다는 것이다. 黑47에는 白48이 후수. 담장 黑49이하로 귀를 짓밟혀 형세는 더욱 크게 기울어졌다. 그리고 黑61이 또 무척큰곳. 갑자기 하변 黑집이 커다랗게 부풀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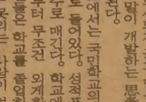
이리하여 白64, 이수로「나」면 黑도「다」에 울타리를 쳐서 각기집차지하여 白은 도저히 승산이없다. 한데, 黑65에대한 白66이 거듭되는 완착. 차라리 고집같은 수라할까. 어쨌든 崔초단은 냉정을 잃고있었던 모양이다.

「白66은 즉시 69자리에 밀어 黑65를 안수로 만들시기」란는 趙南哲8단의 말은 黑67, 69가 거의선수인 까닭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보통이면 白은「라」자리를 응수해야된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없다. 崔초단은 앞서 黑59, 白60까지 두어놓은것을비장한 낯으로응시한다. 좌변 黑집에 뛰어 승부수를 띄운요량이다. 【一凡】

메아리

文痴·言痴



金聖佑 <編輯委員>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지를 잘 안쓴다. 주위사람들이 그러니까 다그러려니하는 어림짐작의 독단이 아닌가하고 체신부에 물어보았더니 과연 증거가 될만한 통계가 있다.

만국우편연합이 1979년말 현재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국민 한사람이 한해평균 우편을 이용하는 양은 한국이24·3통이다. 벨기에가 341·8통, 프랑스가 240·2통, 가까운 일본이 131·9통인데 비하면 월등한 차이이고 대만이나 말레이지아 수준에도미달하는 하위선이다.

우편물이라고해서 다 편지는 아니니까 이가운데 인쇄물을 제외한 순수한筆書封書는 우리나라에서 80년의 경우 전체우편물의 45·7%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편물의 이용량은 해마다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그 증가율은 갈수록 평균수준에서 크게 떨어지고있고 筆書封書는 印刷封書에 비해 율이 자꾸 낮아져 간다. 한국사람은 편지를 잘 안써왔고 점점 더 안써가고 있다는 말이다.

체신부측에서는 우리나라사람들이 이렇게 편지를 잘 안쓰는 까닭을 TV등 映像文化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이 受動化되었기 때문에 能動的으로 편지를 쓰기 싫어하고, 또 전화등 전기통신수단의 보급으로 편지의 역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일면의 이유일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못된다. 선진국에서는 TV가 없고 전화가 없어서 우편량이 우리의 10배이상 되는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지를 쓰기 싫어한다기 보다도 도대체 글을 쓰기싫어한다. 여기에 문제가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글을 쓴다는것은 전문적인 문필가나 저술가가 하는 일이라는 관념이 박혀있다. 신문·잡지에 실리는 筆陣들은 언제나 그 얼굴이다. 非專門人이쓴 글이나 책이흔하지않다. 글을발표할기회가 없으면 일기를 써도되고 편지를 써도된다.우리사회에서는 편지도그렇거니와 일기 또한습관화되어있지 않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무글도 안쓰고 지낸다. 글쓰는것이 日常化되어있지않다. 文痴가많다.

글뿐 아니라 말도 그렇다. 말은 말로 먹고사는 사람들이나 잘하는 것인줄 안다. TV에서 길목가는 행인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을때 대부분의 경우는 듣는사람이 답답하다. 軍答아니면 조리가 없다. 프랑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워나 말 좋아하는 민족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시골사람이라도 말을 더듬거리는 법이없다. 무슨 대답이나 일상의 대화에서도 이론은 한가지 단정을 하고나면 「왜냐하면」이란 말을 자동적으로 덧붙인다. 우선 그래놓고나서 이유를 생각하고 立論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글짓기와 말하기가 훈련되어있지않은것은 무엇보다도 첫째가 교육탓이다. 문교부에서는 때늦게나마 이번학기부터 초·중·고교의 학습지도와 평가방법을 바꾸도록 시달했다고 한다. 국어가 독해력 위주이던것을 글짓기와 말하기에 시간과 배점을 늘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초·중교에서는 글짓기가 국어 1백점만점중 20점과 5점의 배점이었고 말하기는 중학교에서 10점을 주었을 뿐이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글짓기 말하기 모두 한점도 배점이 없었다. 문교부의 지침이 잘만 시행이 된다면 우리 국어교육에 큰 劃期가 될수있다. 그러나 일선교사들이 入試위주의 교육관념에서벗어나지 않는한 아무리 指針이 외쳐대도 우리국민은 여전히 편지를 쓰지않게되고 TV의 마이크앞에서 말할때마다 제대로 못하게된다.

글이나 말이나 자기 의사의 자유스러운 표현은 커뮤니케이션시대에 사는시민의 자격요건이다. 그리고 글과 말은 단순한 의사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思考를 개발한다. 사회가과학화할수록 그 과학화사회가 글과 말을 위축시킬수록 글과 말이 개발하는 思考力이 절실히 요청된다.

프랑스에서는 국민학교의 교과에 詩가 별도로 들어있다. 성적표에는 詩를 따로 점수로 매긴다. 학교에 처음 들어가면 詩부터 무조건 외게한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詩몇편쯤 못외는 사람이 없다. 이것이 文章를 번어나게 하는 기초훈련이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에 나와서도 詩한편을 끝까지 외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가끔 들어보면 거의가 노래의 가사가된 詩정도나 그나마도 한소절 한소절 곡조를 흉얼거려서 겨우 뽑아낸다.

마음속에 詩한편이 들어있으면 편지도 쓰고 싶어지고 일기도 쓰고싶어진다.

공 고

1982년 9월 18일(토)부터 저희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영업 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월요일～목요일 : 오전10시～오후6시
◎ 금요일 : 오전10시～오후7시
◎ 토요일 : 휴무

보험과 법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 BLOOR ST. W. TORONTO M6G 1L1
☎ : 533—9387 · 9388

LOEB
CASH "N" CARRY

※ 온타리오주에 10개소의 도매상(토론토에는 3개소)들이 당신의 비즈네스를 위해 성심성의껏 친절 봉사코 있읍니다.

매주 광고전단을 만들어 각 소매상에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원하시는분은 저희 도매상에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스페샬품목의 광고전단을 즉시 보내드리겠읍니다.(예 : Allen's Pure Apple Juice 48온스 $13.77 8월16일 ～ 8월28일)

★★★★ 당신의 M.Loeb Cash & Carry ★★★★

3 CONVENIENT TORONTO LOCATIONS

TORONTO
20 Orfus Road
Mgr. Dennis Schulz
782—8892

TORONTO
160 Evans Ave.
Mgr. Frank Arnone
255—6366

SCARBOROUGH
55 Bertrand Ave.
Mgr. Norm Carmichael
752—7292

LONDON
304 Adelaide St. S
Mgr. Ernie Kormendi
686-7590

WINDSOR
2629 McDougall St.
Mgr. Gary Villemaire
969-9610

SARNIA
135 Water St
Mgr. Keith Hood
337-2751

ST. CATHERINES
189 Bunting Road
Mgr. John Neufeld
684-9581

HAMILTON
256 Gage St. S
Mgr. Mark Hagan
549-7069

BRANTFORD
16 Morton Ave
Mgr. John Baker
759-4633

CHATHAM
80 William St. S.
Mgr. Peter Antuma
354-3000.

한인 대학생회 동창회(가칭)
창립총회

회원간의 친목, 선후배간의 유기적 관계및 복합문화 구현에 기여등의 기치를 들고 한인대학생회 동창회(가칭)가 창립될 즈음에 있읍니다. 온타리오주내 대학에 1년이상 적을 두었던 모든 회원 들은 창립총회에 초대합니다.

◎일 시 : 1982년 9월25일(토) 오후7시30분
◎장 소 : LIBRARY SCIENCE BLDG. 7층 LOUNGE (토론토대학교 중앙도서관 ROBART LIAB의 부속건물— ST. GEORGE ST.과 SUSSEX ST.의 교차지점)

창립준비위원장 : 김의명
창립준비위원 :
GUELPH U : 윤주석, 고정화
HUMBER U : 김희체
MCMASTER U : 김의애
OCA : 문안나
RYERSON C : 전병혜
WATERLOO U : 이성기
WESTERN U : 박현주
YORK U : 강찬영
U of T : 전봉수 · 오준상 · 김의명 · 이영웅 · 이덕재 · 김태형 · 이병룡 · 이학수 · 이재용 · 장 영 · 최기한 · 박성수

연락처 : 김의명(422—3706) 장 영(928—2840) 고정화(622—5176)

背後에「旅券 전문僞造團」

20代 拉致소동사건 관련자 身柄확보 집중수사

韓씨 6월에도「가짜」로 出國
돈주고 샀다는 李哲씨 수배

韓昇熙씨(28)와 李俞政양(28)의 가짜여권 출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西部경찰서는 14일 이들의 불법 출국을 도와준 여권전문위조 조직이 있을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 집중수사중이다. 경찰이 배후에 위조조직이 있는것으로 본것은 韓씨가 미국에서『여권2매를 8백만원에 샀다』고 진술했으나 그 전에 이미 위조여권으로 미국을 다녀온일이 있고 이번에 사용한 여권2매중1매는 金敏淑씨가 빌려준것으로 밝혀져 여권의 사진을 감쪽같이 바꿔치기 해주는 위조조직에 그돈을 준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권주인 金씨立件·姜씨도소환 調査

◇金 敏 淑씨

◇姜 相 敦씨

이에따라 경찰은 이날李양이 갖고 나간 여권의 주인金敏淑씨(29·여·서울鍾路區淸雲洞 淸雲아파트9동 508호)를 여권법위반혐의로 입건하고 韓씨와의 공모여부를 캐는한편 또다른여권주인 姜相敦씨(24·국제콘테이너 사원·城南市丹垈1洞 472의6)에 대해서도 여권이도용되게된 경위를추궁하고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韓씨가 8백만원을 주었다고 한 李哲씨(52·경기議政府市佳陵洞)가 여권전문위조조직과 관련이 있을것으로 보고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의류오퍼상인 코리아 재클린 그레이스사대표인 金씨는 지난6월16일 하와이에 상담차 갔다오는 길에 비행기안에서 주한미군을 사칭한 韓씨로부터 한국에있는 약혼녀를 데려가게 여권발급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

당시 金씨는 韓씨로부터 여권을 발급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대신 외국에서 물건을 반입할때 자신의 신분을이용, 면세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것.

그이후 金씨는 S호텔과 M호텔등지에서 韓씨와 李양을 10여차례 만났는데 지난6월20일 S호텔에서 만났을때는 韓씨가 金씨에게 姜相敦씨의 여권을보이며『삼촌』이라고 소개, 로스앤젤레스행비행기표를 사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지난달 16일상오10시30분께 서울市區武橋洞8로제과점에서 만나 자신의여권과 현금5백10만원도 빌려주었다.

그러나 韓씨는 그후 자취를 감춰 金씨는 지난6일 서울鍾路경찰서에 여권분실신고를낸뒤 7일 새여권을 발급받았다는 진술이다.

한편 姜씨는 14일 경찰에 자진출두,『지난달15일~20일사이에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갖고다니던 여권을 분실했을 뿐 이사건과 관련이없다』고 주장했다.

姜씨는 경찰에서 지난달20일 金浦공항에 물건을 찾으러갔다가 현금 2만원과 여권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했으나 여권이 돌아올것으로 생각하고 신고를 미뤄왔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姜씨가 지난8월중순께 여권을 분실했다고 주장하지만 바로직후인 지난달16일 이미 韓씨가 姜씨의여권을 金씨에게 보여주었으며 ▲분실한 두사람의 여권이 동시에 韓씨의 손에 들어간점등을 들어「거래」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있다.

한편 여권브로커 李哲씨(52·경기議政府市議政府洞)는 미대사관과 기지촌주변을 무대로 여권주선행위및 알선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李씨는 議政府市 佳陵洞캠프레드·크라우드앞에서「議政府오피스」란 영문대서및 번역사무실을 차려놓고 주로 위안부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여권주선및 알선을 해왔는데 지난번 金浦공항 34만달러 밀반출기도사건이 나자 행방을 감췄다가 최근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서울에서 韓씨와 함께 李양을 강제로 피아트승용차에 태워달아난 사람이 陳모씨(30대)나 金모씨가 아닌가 보고 연고지인 議政府와 禾谷洞일대에 형사를 보내 수사를 펴고있다.

美경찰, 韓씨 拘束
16일 첫公判 李양, 친구집서 調査받아

【美콜로라도州덴버=姜聲求직국장】미스서울 李俞政양(호적명 李淳腦) 납치 소동을 수사중인 미국경찰은 13일 보석금 5만달러를 걸고 韓昇熙씨(28)를 구속했다.

韓씨에 대한 첫공판은 오는16일 열기로 결정됐다.

韓씨는 법정에서 자기가 서울에 거주지를두고있으며 나이는 25세라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에 입국할때 다른이름으로 발급돼있는 여권을 휴대했다고 미국경찰의 한대변인이 말했다.

미국경찰의 론·비티경사는『나는 韓씨가 李양이 자기 손아귀에 쥐여있어 친구들에게 아무런 소리도 하지못하리라고 생각했었던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李양은 덴버시의 인트·조셉 병원에서 타박상과 화상치료를 받은뒤 14일 퇴원, 친구집에 묵으면서 불법입국경위에 대해 美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李양가족

李양가족들은 14일『납치로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견해는 잘못』이라고 말하고『경찰이 사건신고 과정에서 납치를 가출신고로 바꾸도록 설득했으며 관할 鷹北파출소에 수사비조로 모두 4차례에 걸쳐 45만원을 주었는데도 수사에 열의를 보이지 않아 사건신고후 17일동안이나 두사람이 국내에 머물고 있었는데도 찾아내지못해 국제적인 물의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또『파출소에서 수사비를 韓씨의 행적수사와 金浦공항의 출국금지조치에 사용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같은 李양 가족들의 주장에따라 鷹北파출소장등을 불러 진상을 규명키로했다.

旅券에 異常없었다
出國사열 담당

법무부 金浦출입국 관리사무소(소장 崔榮基)는 14일 韓昇熙·李俞政씨가 姜相敦·金敏淑의 이름으로 지난5일 하오 KAL 016편으로 출국할때 출국사열을 담당한 주사보 朴성복씨(33) 朴정춘씨(30)등 두사람을 조사했으나『전혀 여권에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韓씨가 필립·리 이용호의 이름으로 여러차례 왕래했었다는 진술에 따라 조사했으나 기록상으로는 없어 확인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가짜여권으로 미스서울 李俞政양을 미국에 데리고 갔다가「납치」혐의로 고발, 체포된 韓昇熙씨(28)가 13일 미콜로라도州 리틀톤郡의 한 법정에서 심문을 받고있다. 【리틀톤=14日UPI=聯合】

韓昇熙씨 스토리

허위·非行으로 얼룩진 人生…고교2년때 女高生꾀어 同居 男妹낳기도
좋은머리·용모로 닥치는대로 獵色행각
생활비 안준다고 아버지暴行 2年服役

미스서울 李俞政양(28)과 함께 미국으로 달출, 애정행각을 벌인 韓昇熙씨(28)는「허위」와「비행」으로 가득찬 젊은이였다. 그의 지난날이 아직 덜 밝혀져 있지만 전과6범인 그는 부모와 장모를 폭행한 패륜아였고 점찍은 여자는 어떻게해서든지 손에넣는다는 냉혈사기한이었다.

학력이라고는 고교 2학년 중퇴지만 IQ1백35, 여성적용모, 남다른 붙임성등을 밑천삼아 자신을 철저히위장한채 사기와 범죄·엽색행각을 계속해 왔다.

韓씨의 첫 범죄행각은 고교재학시절이었다.

상업을하는 아버지의 3남1녀중 장남인 韓씨는 大田 C고교 2년재학중 부모가미국에 교환교수로가있는 고교 2년생인 李모양을꾀어 동거 현재 10살난 아들과 5살난 딸을 두었다. 韓씨는 이때처가의 도움으로 大田에서 부동산소개업을했으나실패, 일정한 직업없이 아버지와처가로부터 생활비를 타내 생활했다. 처가에서 더이상 보조해줄수 없다고 나서자 韓씨는 지난74년9월 장모를때리고 자신은 동맥을 끊는 자살소동을 벌여 폭력혐의로구속됐다.

다음해인 75년 12월엔 생활비를 대주지않는다고 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 大田지법에 의해 존속폭행및 강도상해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출감후 韓씨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생활이 막연하자 상경, 龍山청과시장에서 리어카행상을 시작하고 운전기술을 배우는등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이때부터 그의 곱상한 용모와 좋은두뇌가 생활수단으로 변한다.

梨泰院미군부대주변을 배회한 韓씨는 쉽게 영어를 익히고 미국으로 건너갈것을결심, 78년9월 미국신분증에 자기사진을 붙여 밀항을 기도해 하와이까지갔다가 강제귀국조치당했다. 밀항및 여권위조혐의로 서울江西경찰서에 붙잡힌 韓씨는 조사를 받던중 도주, 2년간 기소중지자로 수배를받았는데 다시 교통사고를내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붙잡혀 1년6월의 징역을 살았다. 복역중 그는 영어공부에 열중했다.

지난해10월 출감한 韓씨는 더이상 국내에 설땅을 찾지 못하겠다고 판단, 철저하게재미동포행세를 하며 도미를위한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가『미국에 가스테이션을 갖고있는 재미동포 필립·린』이라고 소개하면 속지않는 사람이 없었다. 韓씨는또 자신이『모재벌 간부의 2세다』『장인이 모장관과 친구사이다』는등 닥치는 대로 거짓말을 해댔고 때때로 전화를 걸어『미국에 있는데 며칠후 귀국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많은 여성들이 그의마수에 걸려 피해를 보았고 미국과 인연을 맺고싶은 사람들은더욱 손쉽게 사기를 당했다. 이런식으로 생긴돈으로 韓씨는 유명호텔을 전전하면서 새로운 대상자를 찾았다.

李俞政양은 韓씨에겐 월척이었다. 지난해 11월 초 [illegible] 하면서 알게된 韓씨는 예의수법으로『미국에 주유소를 갖고있는 재미교포로 결혼대상자를 찾으러나왔다』고 소개했고 李양은 그대로 속아넘어갔다.

지난4월에는 明洞에서 발이 넓은 M씨에게 접근,『형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후광으로 이용하려 하기도 했다. 지난 5월 李양이 미스서울에 선발되자 韓씨는 李양을 이용, 미국으로 가기위해 바빠졌다.

지난6월에도 위조여권으로 미국에 갔던 韓씨는 李양앞으로『하와이 이민국에서 초청장과 재정보증서를 보내주겠다』『비자발급 받기가 어려워 가장 빠른방법을 찾는중이다』라는 내용의 3통의 편지를 보내기도했다.

지난6월16일 귀국하는 비행기에서는 金敏淑씨(29·의류수출상)에게 자신을 미군이라고 소개,『주한미군인 나를 통하면 의류를 수출할때 통관세를 안물수있다』고 접근, 귀국후 金씨로부터 여권과 현금5백여만원을 우려내기도했다.

이같은 사기행각은 그의 철저한 위장전술로 손쉽게 드러날것같지가 않았다. 결코 전화번호(동생집)외에 아무에게도 집을 알려주지 않았고 증명서도 내보이지 않았다.

청바지, 심플라이프상의에 선글라스를 끼어 전형적인 젊은교포차림으로 엽색행각에서 생긴돈으로 구입한 포니승용차까지 타고다녔다. M씨도 신문에 사건이 보도된 후 韓씨의 정체를 알았을정도.

李양도 지난 7월중순께야 韓씨의 정체를 눈치챘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그녀에게도 허황된꿈이 있었기때문이다. 韓씨의 동생조차도 韓씨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고 털어놨다.

자기도취에 빠져 허위로만 일관한 韓씨는 결국 비참한결말을 볼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方畋俊기자】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01

強壓의한 自述書 證據능력없다

大法院판결 刑訴法·종래判例 뒤엎어

殺人누명金時薰피고 原審파기·拘束집행정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필로 쓰고 서명날인한 자술서라도 그내용이 강압성에의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부인될경우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兪泰興대법원장·주심 李成烈대법원판사)는 14일 진범이 검거됨으로써 억울한 살인누명을 벗게된 金時薰피고인(30·충남大田市東區大洞1 94·한국일보9월11일자보도)에 대한 살인및 폭행·상해등 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光州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돼도 그 내용이 부인되면 증거능력이 없으나(3백12조2항)자술서는 피고인 자신이 쓰고 서명날인한것이라고 법정에서 인정하면 그 내용은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3백13조1항)라고 되어있으며 지금까지의 대법원판례역시 이러한 해석을 내려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자술서라 하더라도 그 자술서가 신빙성있는 상태에서 작성된것이라야만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종래의 판례를 뒤엎은 것이다.

대법원은 또 판결문에서『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될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자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하여금 작성해 제출케한 경우에는 이자술서의 증거능력유무는 사법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해석해야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판결은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할 피의자진술내용을 자술서로 받았다면 이자술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해도 그임의성여부를 따져 증거능력을 판단해야한다는취지로해석된다. 대법원은 또 이날金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께내렸다.

金피고인은 진범이 따로있는것으로 밝혀진 살인사건의에 폭행·상해사건이 함께 기소돼 있었는데 이날 살인사건에대해 대법원의 파기판결이 내려져 원심인 光州고법에서 살인부분은 무죄판결이 내려질것이 확실시되며 나머지사건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수있게됐다.

金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의 증거능력문제는 1·2심에서도 쟁점이 됐다. 1심에서는 金피고인이 경찰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물론 자술서도 그 내용뿐만 아니라 진정성립까지도 부인하므로 유죄증거로 삼을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살인부분에 대해 무죄를선고했었다. 그러나2심은경찰에서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진정성립뿐아니라 내용까지도 동의해야 증거능력이있으나 자술서는 내용의 부인여부에 관계없이 진정성립만 인정하면 증거능력이있다고보아 그자술서가 고문이나 강요에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유죄라는판결을 내렸었다.

이날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 10대3으로 이루어졌는데 소수의견을편 3명의 대법원판사들『이사건 자술서의 기재내용은 작성경위에 비추어 이를믿지않기때문에 결론은 다수의견과같으나 자술서의 해석에있어서는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일단 증거능력은 갖는것이고 그내용이 신빙성(증명력)이 있느냐의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야한다는 견해이다』라고 밝혔다.

결혼예물, 보석 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536-1692

朴槿暎양 어제結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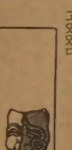
◇柳瓆 嶺南학원이사장 주례로 결혼식을 올리고있는 신랑 柳靑씨와 신부朴槿暎양.

故朴正熙대통령의 차녀朴槿暎양(28)이 14일 하오3시 서울城北區자택 정원에서 柳敎佑豊山금속회장의 장남 柳靑씨(33·豊山금속센터부사장)와 柳瓆 嶺南학원이사장의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에는 故朴대통령의 가족인 朴槿惠씨, 朴志晩씨, 陸寅修의원, 柳회장등 신랑신부친족들, 尹致暎, 朴順天, 申鉉碻, 金鍾喆씨등 친지, 그리고 故朴대통령시절의 측근인사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illegible]

感激의 그날
仁川라이온스 沈布學총무국장
自由수호위한 上陸작전 선봉에



仁川라이온스클럽 沈布學총무국장(57·사진)은 해마다 9월15일이 되면 仁川바닷가를 찾는다. 지금은 仁川항의 모습도, 갯벌의 형도 많이 변했지만 32년전『자유수호』를 외치며 갯벌을 달리던 7만5천명의 戰友를 생각한다.

50년 9월15일 상오6시40분 해병제2대대 6중대장 沈布學중위(당시)는 仁川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상륙주정의 선봉에 서있었다. 뒤로는 7만5천여명의 연합군을실은 상륙주정들이 파도처럼 뒤따르고있었다.

仁川시내는 이미 함포와 폭격으로 검은연기가 하늘을 가렸고 각종 포탄터지는 소리는 귀청을 찢을듯했다. 28분만에 月尾島에 교두보를 만드는데 성공한 연합군은 레드비치, 그린비치등 3개지점으로 나누어 仁川항 상륙을 감행했다. 沈중위가 이끄는 6중대는 지금의 대성목재와 대한제분사이인 레드비치로상륙했다. 적의 저항은 완강했다. 특히 仁川 萬壽洞중국인촌고개에서 마주친 적의 저항을 꺾는데는 거의 하루가 걸렸다.

현재의 체육관을 지나 濟物浦에 이르자 여기저기에 숨어있던 주민들이 뛰쳐나와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왜 이제왔느냐』고 원망반 부정비슷한 소리를할때는 자유의 소중함이 새삼스러웠고 하루빨리 적을 무찔러야겠다는 결의가 새로와졌다.

주안염전~능곡~행주나루터~서울麻浦강변~靑坡洞~南大門~東大門~금곡으로 이어진 서울탈환의 길은 승리뿐이었다. 일단 붕괴된적은 저항보다는 달아나기가 바빴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후련함이 온몸을 감싼다.

경남鎭海가 고향인 沈씨는 47년에 入隊, 해병대 창설기간요원으로 차출돼 훈련을 받다가 6·25동란을 당했고, 仁川상륙작전때는 선봉을 섰던것이다.

仁川상륙작전후에도 元山상륙작전에 참가했던 沈씨는 62년 해병중령으로 군복을 벗었다. 그러나 금성·충무등 23개의 각종훈장과 휘장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전장을 누볐던 沈씨의 전공을 말해준다.

현재 仁川市文鶴洞에서 목장을경영하고 있는 沈씨는『지금 생각해도 그때 우리국군은 정말 용감했어요. 자유와 국토를 수호하는데 몸을 앞세웠읍니다』고 그때를 돌이킨다. 【崔成基기자】

1982~83학년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개강안내

◇기　　간 : 1982년 9월25일부터 1983년6월18일까지(32주간)
◇시　　간 : 매주 토요일 아침10시부터 12시까지
◇장　　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DALE AVE. (쎄인 · 클레어×영)
◇자　　격 : 고등반부터 성인반까지
◇프로그램 :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기초반)
오전11시부터 12시까지 (연구반)
◇지도내용 : 기초반－기본동작Ⅰ, 화관무, 아리랑환상곡, 즉흥무
연구반－기본동작Ⅱ·Ⅲ, 부채춤, 살풀이, 탈춤, 장고춤
◇복　　장 : 움직이기에 편한 복장과 덧신
◇수 업 료 : 32주간에 $160
4주간씩 나누어 등록하실 경우(시간당 10달러)
◇신청장소 : 위의 장소에서 9월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접수.
◇문의전화 : 김미영 : 499－5079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
함석헌선생 강연회

일　시 : 1982년 9 월25일(토)
오후 7 시
장　소 : 온타리오 교육회관
(252 Bloor St. W.)
연　제 : 새로운 국가관
주　최 : 토론토 한국민주사회
건설협의회
후　원 : 민중신문사

※한국의 민주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 평생 학처럼
깨끗하게 살아온 함옹의 참 씨알의 소리를 들으시라!

새해豫算 10兆5,170億원

올해보다 9·8%증가

1人擔税 26만5천원

湖南고속도 擴張·공무원俸給 6%인상

정부는 내년도 나라살림규모를 올해보다 9·8% 늘려잡은 10조5천1백70억원규모의 새해예산안을 확정, 13일부터 黨政협의에 들어갔다. 늘어나는 예산(歲出)9·8% 가운데 세금을 거두어 충당하는 歲入은 4·1%만 늘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돈 5천5백억원(5·7%해당)은 國債를 발행해서 메우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들이 내년에 낼 세금은 한사람당 26만5천2백원으로 올해보다 5천원 (2%가량) 많아지게 됐으며 조세부담률은 18·5%가돼 올해의 18·6%보다 약간 낮아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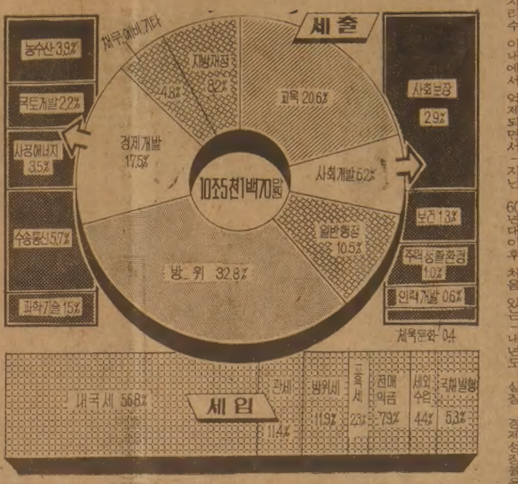
정부예산 규모증가율이 한자리수 이내에서 억제되면서 赤字내용으로 편성된 것은 지난 60년대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을 7·5%, 도매물가 상승률을 5%로 전제하고▲경기회복의 촉진▲물가안정▲경제의균형적발전▲철저한 예산절약등에 촛점을 맞추어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고 밝혔다.

새해예산안은 경기회복의 촉진을 위해 공공투자사업을 계속추진하는 대신 다른 사업비와 일반경비는 대폭줄여 철저한 긴축을 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湖南고속도로 4차선확장공사를 내년부터 앞당겨 시작하고 섬진강 住岩댐공사도 착수키로 했다.

공무원 봉급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봉기준 일률적으로 6%를 인상하되 이와는 별도로 현재 5년이상 6급(주사) 공무원에게만 주고있는 장기근속수당을 내년부터는 5년이상된 6급이하 전공무원에게 6~10년은 월2만원씩, 10년이상은 3만원씩 주기로 했으며 5급(사무관)이상은 현재수준의 정보비를 그대로 주기로했다. 교원의 경우는 교직수당을 4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일률인상하고 경찰관은 장기근속수당을 1만~3만원에서 4만~8만원으로 크게 인상하는 동시에 지급대상도 현재경감이하로 돼있는것을 경정이하로 확대했다.

내년예산은▲전체의 32·8%를 방위비로 쓰고▲27·1%를 사업비로▲15·1%를 인건비로▲9·4%를 교육교부금 으로▲8·2%를 지방교부금으로▲4·7%를 채무상환및예비비로▲나머지 각1%씩을기준 경비와 관서운영비로 쓰도록 짜여졌다.

내년에 새로 벌이는 주요사업은▲호남고속도로 4차선확장공사▲올림픽보조경기장건설▲섬진강의 住岩댐건설(실시설계)▲光陽공업기지건설▲遺傳공학센터설립▲직업훈련원신설▲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추가건립▲錦江지구개발사업▲중앙박물관이전등이다.



모든事業者 특혜적용

음식·숙박·여객運輸·서비스業

附價税·특별消費税法개정안

정부는 附加價値税法을 개정, 음식업, 숙박업, 여객운수업및 서비스업등 4개업종은 매출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지정하여 과세키로하고 그대신 고급업소에 대해서는 부가세율을 현행 외형금액의 2%에서 5%로 대폭 인상키로했다.

정부는 또 특별소비세법을 고쳐 휘발유에대한 법정세율을 현행 1백60%에서 1백%로 낮추고 세금이 부과되지않은 가스에 대해 새로 1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부가세및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3일 재무부가 발표한 82 間接税制개정요강 (안)에 따르면 부과세의 과세특례제도를 개선, 업종의 성격에따라 2개그룹으로 분류하여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차고보관업, 대리중개업등 사업자간 거래할수있는 업종은 현행대로 시행하되 ▲음식, 숙박, 여객운수, 서비스업종은 전사업자에 대해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아울러 과세특례자의 세율및 매입세액공제율을 조정, 전문음식점·고급여관·전세버스·特種선박·골프장·도박장·고급목욕탕에 대해서는 외형금액의 5%를, 그리고 소매업및 일반업소에 대해서는 2%의세율을 적용키로함과 아울러 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5%에서 10%로 올리기로했다. 세법개정에따른 세수결함은 4백50억원으로 추정되고있다.

부가세법개정안은 또 가산세의일부를 완화, 무납부 가산세를 10%에서 5%로낮추고 예정신고및 확정신고무납부가산세(각 10%)를 각각 별도로 2중부과하던것을 한번만 부과하고 수출업자에대한 무신고가산세를 1%에서 0·5%로 인하했다. 이밖에도 세금계산서제도를 간소화하고 대리납부제도를 폐지했다.

社會漫評

새해 예산…

地平線

『못된 시어미는 등뒤에도 귀가 있다』는 러시아의 속담이 있다. 스페인사람들은 『시어머니란 설탕으로 만들었다해도 쓰디 쓴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제가끔 딴 살림을 차리는 핵가족의 시대지만, 서양사람들도 옛날엔 3대가 한집에 사는게 예사였다. 그러니까 서양사람이라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좋을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숙명적인 관계를 족집게처럼 꼬집은 속담은 아무래도 우리만큼 많은 예도 드물것같다. 『잠아 잠아 오지말아/시어머니 눈에 난다/시어머니눈에 나면/님의 눈에 절로 난다』고 한탄하던 며느리는 『모진 시어미 밥내 맡고 들어 온다』고 푸념했었다. 며느리란 소처럼 일만해서 『홀적 며느리 날 적 송아지』라고했다.

▼옛날의 일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패 미워했던것같다.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밉다』는 건 약과요, 『굿하고싶어도 맏며느리 춤추는 꼴 보기 싫다』고도 했다. 『쥐잡아주는 고양이 먹은 알고 며느리 먹은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며느리 늙어 시어미 된다』는것도 당연한 인생의 순환이다. 내가 받은 고초를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보복의 심리다.

▼그러나 사람이 땅에 매달려 살던 시대가 지나면서 형편은 달라지고 있다. 자식도 크면 직장을 갖게 되고,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하는 세상이 됐다.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노인의 역할이 상실돼가는 시대다. 젊은 부부가 딴 살림을 차리는 핵가족이 아니고,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에도 형편이 그 옛날과 같을 수는 없다. 소위 「노인문제」가 그것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식과 함께 사는 경우는 노인인구의 10% 안팎이라고 한다. 이에비해 아시아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80%이상이 3대가 함께 사는 전통적 가정이다. 특히 한국은 3대동거율이 높아서 95·7%나 되고 있다는 당국의 통계다. 노인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요, 아직도 외형상으론 전통적인 3대동거가족이 주류라고 할수있다.

▼68세의 孫南順할머니가 46세의 며느리에게 콩팥을 떼어주었다 한다. 하늘이 도와서인지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콩팥을이식하는데지장이 없는 체질이었다는 것이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 精誠… 큰뜻 이루게

<13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豊韓紡織(株) 金泳龜회장 **2千萬원**

永豊 (張炳希회장 임직원일동) **1千5百萬원**

(永豊鑛業·高麗亞鉛·永豊機械工業·永豊建設)

(株)振盛레미컨 (金榮俊대표 임직원일동) **1千百70萬원**

샘표食品(株) (朴承復사장 임직원일동) **1千百25萬원**

陸軍 제7393부대 장병 6백52만원

陸軍 제5861부대 장병 6백 만원

韓國證券金融 張在澈 사장 外 5백70만원

大林通商 李載釪 대표 外 5백32만원

(株)國際保税社 金永道사장外 3백 만원

大興機械工業 李興玉대표이사 3백 만원

第5602부대 장병일동 2백92만원

産業經濟技術研 朴聖相원장外 2백51만원

被服工業組合 朴寧均이사장外 2백33만원

(株)復興社 庾東成 대표 外 2백17만원

서울독산국교 안장강 校長 外 1백95만원

서울공덕국교 유정규 校長 外 1백54만원

西周海運(株) 李信喆 회장 外 1백47만원

게이트웨이航空 金光洙대표外 1백37만원

(株)韓星通運 崔世璜 대표 外 1백14만원

太陽産業 서울支社 朴玄회장 外 1백 만원

慶友會 朴鍾寔 회장 1백 만원

서울금란교회 김홍도담임목사外 1백 만원

有二商事仙雲閣일동 70만원

오진암 일동 61만5천원

韓國保税協會 60만8천원

LA한국TV방송 5백弗

韓友通商일동 52만3천원

서울경기국교 40만5천원

한국종합물산 34만4천원

大興機械(株) 30만6천원

昌立産業(株) 30만원

水原새마을研修11期 30만원

▲豊韓紡織株式會社 會長 金泳龜=2천만원
▲(株)永豊대표이사 회장 張炳希씨=1천만원 同임직원일동=1백14만4천원
▲永豊鑛業(株)임직원일동=2백89만2천원
▲高麗亞鉛(株)임직원일동=1백18만원
▲永豊機械工業(株)임직원일동=20만2천원
▲永豊建設(株)임직원일동=26만4천원
▲(株)振盛레미컨 대표이사 金榮俊씨외 임직원일동=1천1백70만원
▲샘표食品工業(株)사장 朴承復씨=1천만원 同 任職從業員一同=1백25만7천 1백50원
▲육군제7393부대장외 장병일동=6백52만1천8백90원
▲육군제 5861부대 장병일동=6백만원
▲韓國證券金融(株) 사장 張在澈씨외직원일동=5백70만4천원 【속초지국접수】
▲大林通商(株) 대표이사 李載釪씨외 임직원일동=5백32만5천3백원
▲(株)國際保税社長 金永道씨외 임직원일동=3백12만2천원
▲大興機械工業(株) 대표이사 李興玉씨=3백만원
▲第5602부대장병일동=2백92만1천4백92원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원장朴聖相씨외 직원일동=2백51만원
▲韓國被服工業協同組合이사장 朴寧均씨외일동=2백33만7천8백80원
▲(株)復興社대표이사 庾東成씨외임직원일동=2백17만원
▲서울독산국교 (교장 안장강) 전교생 (대표 6년 정상빈, 5년 신정원, 4년 조성현, 인솔 박노성교감) 및 교직원일동=1백95만1천4백15원 【소년한국접수】
▲서울공덕국교 (교장 유정규) 전교생 (대표 6년 박정우·박정열·박구용, 5년 송현석, 인솔 김종덕교감) 및 교직원일동=1백54만2천10원 【〃】
▲西周海運(株)회장 李信喆씨외 임직원일동=1백47만4천1백원
▲(株)게이트웨이항공화물대표이사 金光洙씨외 임직원일동=1백37만2천원
▲(株)韓星通運대표이사 崔世璜씨외 임직원일동=1백14만8천원
▲太陽産業(株)서울支社 朴玄회장외 직원일동=1백만원
▲慶友會회장 朴鍾寔씨=1백만원
▲서울금란교회 담임목사 김홍도=1백만원
▲有二商事 仙雲閣 대표이사 오영관씨외 임직원일동=70만원 【소년한국접수】
▲오진암 一同=61만5천원
▲韓國保税協會회장 金炯增씨외 임직원 일동=60만8천80원
▲韓友通商(株) 대표이사 金東先씨외 임직원일동=52만3천6백원 【大邱支社접수】
▲在美로스앤젤레스 한국TV방송(株) 대표 崔光昱씨外=美貨5백달러
▲서울경기국교 (교장 강희준) 5학년 일동 (대표 5년 조현상·이동훈·권혁상·배연대) 40만5천2백원 【소년한국접수】
▲한국종합물산(株) 임직원일동=34만4천2백20원
▲大興機械工業(株) 임직원일동=30만6천원
▲昌立産業(株) 대표이사 金斗植씨=30만원
▲水原새마을研修十一期一同 (會長太完善)=30만원

◇金泳龜씨 ◇張炳希씨 ◇金榮俊씨 ◇朴承復씨 ◇張在澈씨 ◇李載釪씨 ◇金永道씨 ◇李興玉씨 ◇朴聖相씨 ◇朴寧均씨 ◇庾東成씨 ◇김홍도씨

한국일보
우리의 理想은 健全한 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주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밴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 8900 채 준 선
(R) (416)633 7892 (David Chae)

여름을 시원하게

잭·니콜라우스 골프 레슨 테프 입하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UP TO 40% OFF

저렴한 가격 40% 까지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景氣·물가安定에 力點

——한자리 숫자로 묶은 빠듯한 새해 豫算

새해 나라살림을 알아본다

내년도예산안은 『보기드물 정도』의 긴축예산。늘어난 것 보다는 깎이고 없어진 것이 더 많다。나라 살림도 빠듯해질 수 밖에 없다。어려운 살림살이의 내용을 주요 부문별로 나눠 살펴 본다。

「88올림픽」 보조경기장 2곳着工
湖南고속도 4차선 앞당겨 工事
순경·公務員5년이하 6級도 長期근속수당지급

教育

○…교육비 총예산은 2조1천7백억원。금년보다 9·5%가 늘어난다。

국민학교어린이들의 二部制수업이 완화돼 3학년학생의 절반까지 하오반을 없앤다。전체 학급수가 95개 이상인 과대학교는 분리되고 1천5백개의 노후교실을 개축、5백동의 변소를 개량하고 12만개의 책·걸상을 새걸로 바꾼다。유치원에 다니는 꼬마들의 就園率도 올해의 11·1%에서 내년에는 12·1%로 높아진다。

국민학교 2부제완화와 노후교실 개축、책·걸상대체、변소개량등을위해 들어가는 돈은 2천25억원。

중·고등학교 수용시설및 과밀완화를 위해서도 1천3백71억원이 투입된다。

초·중등교원은 4천7백97명이 증원되고 교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교직수당이 月4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며 號俸격차가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교재연구비도 俸給化된다。또 雇傭當直制가 확충된다。

대학의 경우는 학생수가 2만3천명이 늘어나며 학생수 증가에 따른 國立大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

醫療·保健

○…이 부문에 배정된 내년도 예산은 1천25억원으로 올해의 8백43억원보다 22%가량이 증가 했다。내용별로는 의료보험이 3백73억원、보건부문이 6백52억원이다。

의료보험대상이 안되는 영세민의료보호는 대상을 올해의 3백72만8천명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산만 확대、2백45억원에서 3백5억원으로 60억원이 늘어났다。증액된 예산으로 의료보호수가를 확대할 계획이다。현재는 외래진료의 경우 30%、입원의 경우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입원酬價의 지원비율을 90%까지 늘릴 계획。

의료보장 受惠率은 42·4%에서 46·2%로 높아지게 된다。

가족계획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벌이기 위해 예산을 올해의 98억원보다 2배이상이나 많은 2백5억원으로 늘렸으며 올해 1·58%예상인 인구증가율을 내년에는 1·49%로 낮출 계획。

인구대책의 일환으로 移民사업을적극추진、아르헨티나 漁業移民사업에 2억원을 쓰고 集團移住와 契約移住를 추진하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生活環境

○…4백67억원을 들여 상수도보급률을 58%에서 60%로 끌어올린다。市級이상 지역은 보급률이 88%로 된다。

1人當1日 급수량도 2백60ℓ에서 2백65ℓ로 확대。84년완공 목표로 錦江系광역상수도사업을 본격추진、내년중에는 물사정이 안좋은 裡里지역에 通水가되며 낙동강 하구언公事로 釜山의 생활용수공급이 용이해진다。

하수도사업에도 1백11억원이 투입돼 지방도시와 공업지역의 하수도가 개량된다。大邱 大田 全州의 하수도사업에 30억원이 투입되며 구미와 반월공업지역의 하수도 사업에도 각각 46억원및 30억원씩의 돈이 들어간다。

서울 中浪川의 淨化대책비로 31억3천7백만원이 책정돼 汚水정화시설이 3개소、쓰레기종말처리장이 1개소 만들어진다。

2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중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을 완공시키고 3·4호선에도 6백억원을 투입、釜山 지하철1호선에도 1백60억원을 배정했다。서울의 지하철 총연장길이는 올해의 23·8㎞에서 내년에는 58·3㎞로 늘어나고 지하철이용률도 10·8%에서 14·8%로 증가한다。

民願우편제도와 위탁우송제도등 신종우편업무도 내년에 선을 뵌다。

영세민

○…32만9천명에 달하는 생계보호자들에 대한 예산을 올해의 3백97억원에서 내년에는 4백52억원으로 55억원 늘린다。

영세민 자녀들에 대한 학비보조예산을 올해의 2백23억원 보다 53억원 더 많은 2백76억원으로 늘려 전체 중학생의 10%정도가 혜택을 받도록 한다。

내년에 새로 8억원의 예산을배정、영세민 1천세대에게 세대당 80만원씩 地方移住費를 보조해 준다。

올해보다 75억원 더 많은 2백억원을 투입、주거환경개선등 사업형태로 就勞救護를 한다。

21억원을 배정、올해보다 1천명 더 많은 4천명을 대상으로 기능훈련을 시키도록 지원하고 아동·노인·부녀장애자복지등 사회복지사업비로 올해보다 52억원 증가한 1백69억원을 쓴다。

영세민지원을 포함한 사회보장관련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은 총 1천4백69억원으로 올해보다 3백34억원 증가。보증금8천원에 월세4천원하는 12평짜리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1백호건립(경기·城南)사업도 9억원을 들여 별도로 추진된다。

住宅건설

○…주택건설에 6백90억원을 투입한다。돈 쓰이는 용도는 국민주택기금출연에 4백40억원、토개공출자에 2백억원、주택은행출자에 50억원이다。공영주택건설목표는 올해보다 1만호가 더 많은 9만호、2백60만평의 택지도 개발한다。주택보급률은 올해의 75·7%에서 내년에는 76·3%로 높일 계획。

주택건설방향은 국민주택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민간자금을 최대로동원활용한다는 것。

내년에 새로지을 주택수는 모두 26만호로 공공부문이 9만호、민간부문이 17만호다。이것은 올해의 총 20만호、공공 8만호、민간 12만호보다 총 6만호가 더 늘어난 규모이다。

건설되는 주택의 예상 숫자는 올해가 5만6천호、내년이 5만7천호。이에 따라 주택 총량수는 올해가 5백72만6천호가 되며 내년은 5백92만9천호가 된다。내년에 민간부문에서 예상대로 올해보다 5만호가 더 많은 17만호를 짓고 공공부문에서도 1만호가 더 많은 9만호를 짓는다는 것은 주택경기가 살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

農水産

○…올해보다 2백78억원이 늘어난 총 4천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주요 사업내용은 농업기계화、경지정리 및 농지확대、대단위 농업종합개발、용수개발、농·수산유통개선、수산진흥 등등。

用水개발은 한해상습지대책에 3백33억원、25개지구의 大·中규모 용수개발사업완공에 8백52억원을 쓰도록 돼있는데 수리안전답률은 올해의 72%에서 내년에는 73%로 높아진다。

경지정리는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보조율은 30%에서 20%(농민자부담률 20%는 不變)로 낮추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미루지 못하도록 의무화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3백44억원을 들여 1만헥타를 정리、정리율을 올해의 68%에서 내년에는 71%로 높인다。

농업기계화는 기계보유대수를 1백24만6천대에서 1백31만대로 늘리는등 2백67억원을 투입。농지확대는 5개 간척사업지구중 1개를 내년에 완공、유통개선을 위해 84년완공목표로 서울 종합도매시장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농어촌부업제품판매센터를 설치한다。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錦江지구를 내년에 착공하고 臨津지구는 완공시킬계획。

도로·교통

○…호남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예정을 앞당겨 내년에 착공된다。총공사비는 1천5백97억원、88년 완공예정인데 내년예산에는 1백33억원이 반영됐다。

대구·광주간 1백75㎞를 연결하는 88올림픽고속도로는 예정대로 84년에 완공시킬계획이며 공사진도율은 올해의 47·0%에서 내년에는 78·1%가 되며 내년중 투입예산은 6백50억원。

도로포장에 들어가는 돈은 올해보다 3백8억원 많은 1천7백88억원。국도포장률이 올해의 59·8%에서 내년에는 63·5%로 높아지게 된다。IBRD 4차도로사업이 내년에 완공되고 5차사업이 착공된다。

85년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인 호남선철도복선공사는 올해 진도율 17%가 내년에는 43%로 높아지고 5백9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建設사업

○…두군데의 올림픽보조경기장이 내년에 착공된다。하나는 安養공설운동장으로 면적 5천7백여평、총98억원을투입 85년에 완공된다。다른하나는 城南공설운동장으로 면적 7천여평에 총소요예산은 64억원이며 완공시기는 역시85년。

총사업비 8백40억원으로 4만3천헥타를개발하는 錦江지구개발사업도 내년에 착공되는사업이며 완공시기는 86년、내년도 반영예산은 36억4천만원이다。

사업규모 2천7백63억원의 光陽공업기지건설은 내년도 착공사업으로 87년 완공예정이며 내년 소요예산은 1백24억6천7백만원。

中央박물관이전은 부지3만5백평、건평 9천3백평 규모로 내년에착공된다。

내년에 완공되는 주요 건설사업은 서울 綜合운동장 (83년예산 45억원)、임진지구농업개발、낙동강광역상수도、北坪공업기지 (67억원)、서울지하철2호선、濟州국제공항확장공사 (1백4억8천1백만원)、원호병원신축공사 (50억6천9백만원) 등이다。

국토개발

○…또 하나의 새로운댐인 섬진강의 住岩댐이 85년 착공목표로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간다。총사업비는 1천7백25억1천만원、저수용량 8만8천9백입방미터、발전시설 2만㎾규모로 실시 설계를 위해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16억3천7백만원。

86년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인 忠州댐은 내년중 단양읍등 수몰지구에 대한 보상이 7백41억원 나간다。역시 86년 완공목표인 陝川댐은 내년예산에 50억원이 반영 됐다。

댐건설외에 治水·조림·사방·국민휴양지개발등 국토개발사업이 추진된다。河川改修를 위해 4백45억원을 투입、총연장 1백73㎞ (올해는 1백49㎞)를 개수하고 1백억원을 들여 水害상습지 40개지구를 개선한다。

造林은 1백53억원을 들여 7만3천 ha를 하고 砂防은 5천 ha에 1백34억원을 쓴다。12개소의 국립공원을 위해 79억원을 쓰고 8개소의 국민관광지 개발을 위해 42억원을 투입한다。

人力개발

○…기능공 1만1천2백명 양성을위해 1백82억원을 쓴다。21억원을투입、직업훈련교사 1천3백73명을 양성하고 7백20명의 技能長양성을위해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직업훈련의 본격추진을위해 30억원을 들여 職業訓練院을 신설한다。훈련원의 훈련기간은 3년。각학년 3백90명씩 총1천1백70명의 1級技能士를 양성해 낸다。

신규 과학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遺傳工學연구에 착수키로하고 소요예산 11억원의 유전공학연구센터설립등 모두 33억원을 배정。2백17억원을 투입、특정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한다。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10억원이 많은 47억원을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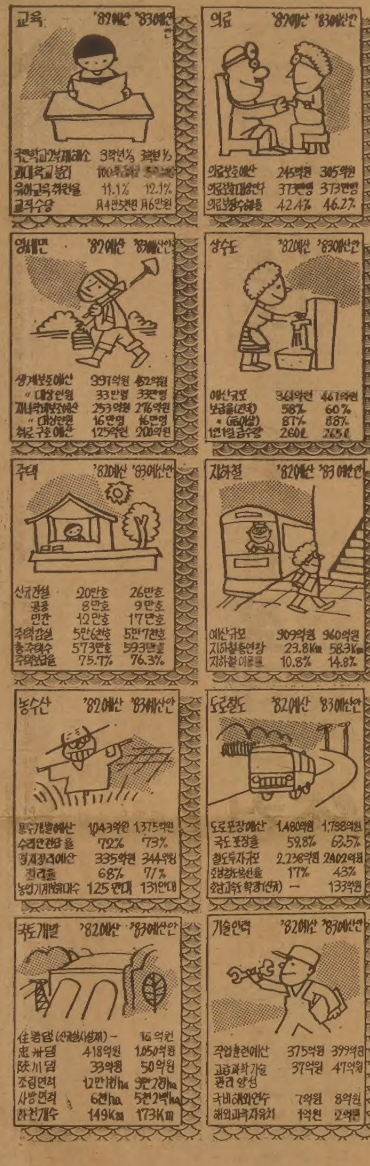
이 돈으로 올해와 같은 규모인 1백30명의 기술자를 선발、國費로 해외 연수를 시키고 84명의 海外科學者를 유치사업도하고 科學技術院에 연구원 碩·博士과정 신설한다。농수산시험연구와 공업시험연구를 위해서도 각각 1백8억원과 1백여억원씩을 배정。과학기술개발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1백25억원 늘어난 총 1천5백45억원 규모。

◇83년 예산규모(案) (단위 10억원) (괄호안은 구성비 %)

세입	82예산	83예산	증가율
내국세	5,582·4 (58·3)	5,973·3 (56·8)	7·0
관세	1,236·1 (12·9)	1,205·5 (11·5)	△2·5
방위세	1,365·3 (14·3)	1,252·4 (11·9)	△8·3
교육세	237·9 (2·5)	247·7 (2·3)	4·1
전매익금	760·0 (7·9)	830·0 (7·9)	9·2
稅外수입	396·5 (4·1)	458·1 (4·4)	15·6
국채발행	—	550·0 (5·2)	—
합계	9,578·1 (100·0)	10,517·0 (100·0)	9·8
세출			
방위비	3,302·1 (34·5)	3,452·1 (32·8)	4·5
교육비	1,981·2 (20·7)	2,170·0 (20·6)	9·5
지방재정교부	719·0 (7·5)	864·7 (8·2)	20·3
일반행정	1,001·6 (10·5)	1,099·3 (10·5)	9·8
사회개발	601·0 (6·3)	649·5 (6·2)	8·1
경제개발	1,679·2 (17·5)	1,774·4 (16·9)	5·7
채무상환기타	294·1 (3·1)	506·9 (4·8)	72·4
합계	9,578·1 (100·0)	10,517·0 (100·0)	9·8

◇주요 財政指標 (단위=10억원)

구분	81년	82년	83년
GNP 名目성장률(%)	24·7	15·6	15·6
일반회계	8,040	9,578	10,517
(比前年증가율)	21·9	19·1	9·8
租稅부담률(%)	19·1	18·6	18·5
(國稅 〃)	17·0	16·7	16·6
(地方稅 〃)	2·1	1·9	1·9
1인당租稅부담 (千원)	211·0	260·2	265·2
특별회계(純)	4,640	3,925	4,385
총재정규모	12,680	13,503	14,902



메아리

史料뿐이라

金昌悅 <編輯委員>

5백억원을 들이면 어느 만큼의 시설을 마련할 수가 있을까。요즘 불길처럼 일고있는 獨立紀念館 건립사업을 보며 이런 어림을 해본다。

단일 건물로 서울에서 가장 크다는 敎育保險빌딩은 약3백60억원의 건축비가 들였다。지하3층 지상22층、연건평 2만8천평에 평당 1백30만원 꼴이다。

건물의 뼈대를 그냥 둔채、中央廳을 國立博物館으로 개조하는데는 약 2백억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그만한 규모로 새로 짓자면 3백억원쯤 든다는 추정도 나와 있다。

이렇게 보면 5백억원이란 만만찮은 돈이다。5백억원 모두를 본건물에 들일것이 아니요、건물에 걸맞을 만큼 넓은 부지를 사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그만하면 남부끄럽지 않을 紀念碑的시설을 이룩할수 있을것같다。

그러나 獨立紀念館을 지음에 유념할 점은 그 外華보다는 內實이다。얼마나 크고、얼마나 장려한 紀念館을 짓느냐보다、그 紀念館이 무엇을 보여 주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덩그라니 큰 건물만 지어 놓고、보여주는 것이、고작 치졸한 記錄畵따위에 그치는 紀念館은 있으나 마나다。

그런 뜻에서、법무부가 日政때 공판·수사기록등에서 독립운동사 資料를 발굴키로 한 것(한국일보 12日字11면)은 반가운 일이다。KBS가 성금접수와 함께、재빨리 史料수집 캠페인을 펴고 있음도 조급하달것은없다。성금을모으는데 드러난 범국민적 정성이、이제 독립운동 史料발굴에서도 발휘될 것을 기대한다。

다만、아쉽기는、하필 史料뿐이랴—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紀念館에 모을 수 있는 것은 動産的史料뿐인데、옮기지 못할 史蹟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생각이다。

독립운동중 가장 우뚝한 3·1운동史蹟만 해도、33인 민족대표가 모였던 明月館(泰和기독교社會館)을 헐어내고、그터에 빌딩을 짓고 있는 것이 우리네다。이 재개발 지역안에 있는 閔忠正公의 殉節터와 함께、泰和館의 보존운동이 일었었다。아무 소용이 없었다。3·1운동의 첫 봉홧불이 일었던 파고다공원은、허울 좋은 개수사업으로、지금은商街의 뒤뜰처럼 돼버렸다。더 거슬러 올라가、獨立門이 金華터널 육교에 짓눌려 길옆으로 비켜 앉은 일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새삼 獨立紀念館 얘기가 나서 집어 내기가 부끄러울 판이다。

생각해 보면、서울의 거리 거리、또 전국 어디를 가나、독립운동 史蹟아닌 곳이 별로 없다。하다못해 3·1운동의 만세소리가 들리지 않은 장터、義兵의 발길 안닿은 골짝이 몇이나 될 것인가。

이런곳 하나하나에 반드시 무슨 큰 造物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아니다。原形은 보존못할망정、푯말 하나를 세워、그 자리를 기억하는 마음가짐은 있었어야 했다는 것 뿐이다。

손쉬운 예로、서울驛을 생각해본다。일본사람들이 지은 그 驛舍를 보존하자는말은 있어도、그 곳이 姜宇奎의사의 義擧터임을 기억하자는 말은 못들었다。나 스스로도、姜의사가 일본총독을 향해 폭탄을 던진 자리가 서울驛 어디쯤인지를 모른다。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한다면 그 자리에 작은 비석하나쯤 박아 둠직하지않은가。그리고 일전 本欄(1日字)에서 지적한대로、서울거리마다 거리이름이 있어야한다면、그중에 독립투사의 이름을 딴 길 거리가있어 마땅하다。

이처럼 기념할만한 곳을 다 찾으면、나라안 방방곡곡 獨立紀念館 아닌 곳이 없다。그리된 연후라야、그 모두를 집약한 獨立紀念館이 더욱 빛난다。

그러므로、새로 짓는 紀念館이 어디 자리 할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그러나 기왕 많은 사람이 찾기 편하고、뜻있고 깊은데를 고른다면、서울西大門區 峴底洞101、지금의 서울拘置所자리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차피、都心가까운 서울拘置所는、법원·검찰청의 江南이전과 함께 전출하는것이 순리다。그 자리 약 6만평—숱한 독립지사들이 옥고를 치르고 목숨을 바쳤던 자리는、獨立紀念館을 세워 기념하기에 손색이 없다。아울러 가까이 獨立門이 있음도 뜻이 깊고、近郊 몇10만평 땅을 수용하며 進入路등 부대시설을하는 수고와 비용을 덜수있을테니、이곳이야말로、빠뜨릴수없는 紀念館 후보지중 하나아닌가 하는것이다。

海外토픽

英女王·首相간 不和
★대처 女王처럼 行動

영국여왕 엘리자베드2세와 마거릿·대처수상은 사이가 좋지않으며 양자간의 주례정기회담의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거나 우호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이같은 사실은 정부내 사정을 잘아는 작가 앤더니·샘프슨씨가 오는20일 발행예정인「변화하는 영국의 해부」라는 책에쓴 내용을 선데이·미러지가 일부 밝힘으로써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엘리자베드여왕은 보다 가정적이고 실용적인데비해 대처여사가 오히려 여왕처럼 행동해 여왕이 정부사정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금요일마다 열리는 정례회담에서도 양자의 역할을 구분하기가 모호할 정도라고。【런던=AP】

13세少女 도버횡단
★英해협 女子론 最年少

금년13세인 영국의 재클린·햄프슨양이 10일상오 5시(한국시간 하오 1시) 영국도버의 세익스피어 해안을 출발、15시간30분만에 프랑스의 그리네곶에 안착함으로써 수영으로 영국해협횡단에 성공한 최연소 여성이 됐다。

만13세2개월인 햄프슨양은 지난 74년 12시간30분의 기록으로 영국해협을 헤엄쳐 횡단한 이집트의 아블라·압델·카이리양보다 9개월이 더 어려 최연소횡단 여성의 영예를 차지하게 됐다。【도버=UPI】

犯罪사건報道 급증
★美"讀者에 恐怖感준다"

범죄사건에 관한 신문보도는 범죄사건에 직접 노출되는 사람들 만큼이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라고 美사회학회의 한 보고서가 주장。

지난 79~80년 신문에 보도된 각종 범죄와 범죄통계에 관해 연구한 애리조나大 사회학교수들에 따르면 범죄율의 증가는 소폭인데도 불구하고 범죄에 관한 신문보도는 갈수록 독자들에게 공포심을 더해주고 있다는것。【샌프란시스코=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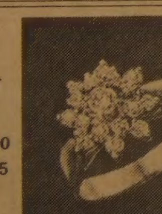
◇해변거니는 83 미스아메리카 83년도 미스 아메리카로 선발된 데버러·마페토양이 12일아침 아틀랜틱시티와 해변을 거닐고있는모습。【아틀랜틱시티(美뉴저지州) 12日AP=聯合】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Reg. 1,000.00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맛 사 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보십시오

새 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 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 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W. SUITE 305
☎ : 537-3104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가짜旅券으로 美國간 20代

愛情행각끝에 拉致소동

8백만원에 여권구입 假名출국

친구통해申告…美FBI서 수사

"납치됐다" "합의旅行" 陳述 엇갈려

【美콜로라도州덴버=美聯求지국장】20대한국인 남녀가 가짜여권을가지고 출국, 미국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납치소동」까지 벌여 미국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있다. 신원이 韓昇熙씨(28·서울中區 仁峴洞1街130)와 82년도 미스서울이었던 李兪政양(28·서울鍾路區 磻磻洞83의16)이 소동극의 인물들. 두사람은 지난8월17일 韓씨가 8백만원을주고 사들인여권에 「姜相敎」「金민숙」이란 이름으로 출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클리블랜드, 신시내티등을 여행했는데 李양이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전화, 신고를 받은 미연방수사국(FBI)이 韓씨를 1급유괴및 1급감금혐의로 검거하는 사태를 빚은것이다. 그러나 韓씨는 李양의 동의아래 미국에 온것이라고 맞서고있어 사건진상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의 AP등 통신과 현지신문은 李양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취급, 사건을 센세이셔널하게 보도하고있다.

◇가짜여권을 가지고 출국, 미국에서 여행중 「납치됐다」고 폭로한 李兪政양.

〔애정행각〕 덴버시 아라파호카운티 경찰서에 수감중인 韓씨는 가짜여권2장을 8백만원에 議政府에서 구입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韓씨는 지난8월17일 李양을 서울에서 납치, 9월4일 金浦공항을 출발, 다음날인 5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후 뉴욕, 클리블랜드, 신시내티등을 돌아다니며 애정행각을 벌이다가 덴버로 향한것으로 밝혀졌는데 韓씨는 체포당시 미화2천달러를 소지하고 있었고 李양은 영어를 잘못해 탈출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론·베티검사는 韓씨가 한국에 인도될 것인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될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문제는 담당검사와 FBI(미연방수사국)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사관은 韓씨가 마약밀매 혐의로 미국에서 한번추방된 적이있었다고 밝혔다.

이수사관은 韓씨가 레이건대통령의 암살미수범인 존·힝클리가 여배우인 포스터양에 미쳤던것처럼 李양의 미모에 정신이 돌아 범행을 저지른것 같다고 말했다.

韓씨는 또『李양과는 지난해11월 택시를 합승하다 우연히 알게됐다』고 말하고『李양과 미국에서 잘살아보겠다고 왔는데 범죄의 혐의를 받고있다니 억울하다』고 말했으며『서울에서 永東S아파트와 유원지호텔 등지에서 李양과 동거생활을 하다 李양의 가족들이 우리사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미국으로 오기로하고 가짜여권을 구입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韓씨는『뉴욕의 호텔에 머물때 李양이 서울에서 사귀던 일본인 호시노·다께이찌(서울P호텔지배인·서울龍山區 외인아파트B동11의7)에게 전화를 걸어 이 때문에 싸움을 하게됐다』고 말하고『李양이 친구가 있는 덴버市에 가서 살자고해 11일 덴버市 힐튼호텔에 투숙했는데 李양이 친구집에 자고 오겠다고 나간후 경찰에 신고해 11일상오8시(현지시간) FBI와 경찰에 체포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는 것.

韓씨는『너무 억울해서 감방속에서 쇠고랑이로 오른손목 정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하다 실패,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만일 납치를 했다면 金浦공항에서의 출국및 미국에서의 입국심사때 어떻게 아무 일이 없었겠느냐』고 반문했다.

韓씨는『나는 미국에서 산적이 없고 지난78년 美군인 신분증을 위조, 하와이로 입국하려다 발각되어 귀국조치 당한일이 있다』고 말했는데 현지보도들은『韓씨가 간수들에게 뇌물을주고 출옥하려했었다』고 보도했다.

〔서울납치〕 李양가족들에 따르면 李양은 지난달16일 하오4시께 江南區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경상도말씨의 40대 여자가 磻磻洞집으로 걸어온 전화를 받고 나갔다. 오빠(41·사업)에 의하면 李양은 이날 미국에 사는 H大음미과동창文모(28)의 시집고모를 자칭하는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와『○○가 시집에 보내는 선물을 갖고 방금귀국했는데 지리를 잘모르니 안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에서 5백여m 떨어진 구청옆 磻磻洞82의8 신라다방에서 만나기로하고 오빠와함께 나갔다는것.

지하다방 입구에서 기다리던 오빠는 동생李양이 다방에 들어간지 20~30분이 되도 나오지않아 들어가보니 행방불명됐다는것.

오빠는 다방 주변사람들에게 물어 동생이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고있다. 다방부근 프로판가스상회 배달원을 붙잡고 상황을 물어보자 20대 남자 2명이 다방에서 나온 여자를 강제로 서울2라×8×7호 회색피아트 승용차에 태운뒤 한사람은 운전을하고 한사람은 뒷자리에 타고 江南區 개포洞쪽으로 달아났다고 말했다.

놀란 오빠는 江南區靑潭洞에 사는 여동생(34)집에 이사실을 알리러 갔는데 그로부터 30분후인 하오6시30분께 李양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어머니(72)에게『엄마! 나야 금방들어갈께』하고 바로끊었다.

어머니 朴씨에 따르면 누군가가 다이얼을 돌려 전화기를 바꾸어준뒤 끊는것 같았다고 말했다.

〔국내수사〕 치안본부는 이들의 출국경위와 납치여부에 대해 현지공관에 조사토록 하는 한편 외무부와 金浦공항을 통해 이들의 출국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韓씨가 議政府역전에서 李哲씨에게 8백만원주고 위조여권2장을 입수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李씨를 수배했다.

10개월前부터交際 同居도

〔李양진술〕 한편 의사의 진단을받고 친구모씨(28)집에서 보호중인 李양은 13일상오 본사와의 전화를 통해『나는 납치됐었다』며 울먹였다.

『한국에 있을때부터알았던』 李양은 韓과의관계에 대해『여권도 韓이 만들어 주었다』고 밝혔다.

李양은 9월4일 출국하기전까지 가든호텔등지를 전전한것으로 알려졌다.

오빠는 사건이나자 곧장관할파출소에 신고하는 한편 지난11일에는 서울시경에 진정서를 내기도했다. 3백만원을 찾아 다썼다는 전화가 걸려오기는 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내돈 1천에도 2~3회 걸려왔다. 그뒤 韓이 모든 수속을 다해주었다고 말하고 한국을 떠나기 직전에는 서울의 가든호텔에 투숙했었다고 밝혔다.

韓昇熙…前科6犯 평소財閥2世행세

한편 韓씨가 갖고있던 여권상의 이름「KANG SANG DON」은 국제컨테이너 서울지사에근무하는 姜相敦씨(25·城南市銀杏洞663)로 밝혀졌는데 그는 지난1월초 회사일로 미국으로출국했다가 5월에 귀국한후 여권을분실했다는것.

한편 李양이 사용한 이름「김민숙」은 상용여권으로 발급된 1명이있으나 이이름이 어떻게 도용됐는지는 밝혀지지않고있다.

한편 납치2일째인 지난달 17일 李양가족들로부터 납치신고를 받은 서울 西部경찰서는 李양의 인상착의등을들은결과 2인조납치범중 1명이 韓昇熙씨(27·전과6범)라는 진술에따라 韓씨를 수배해왔다.

경찰에의하면 李양은 韓씨와 10개월전부터 사귀어오다 동거생활까지했는데 사건발생이후 출국전까지 韓씨와 李양이 각각 자신들의 집으로 10여차례 전화를 걸어와『잘있으니 염려말라. 곧 돌아가겠다』고 말했다는것.

李양은 또 미국에서『도와달라』는 국제전화를 걸어온 있다는것.

〔韓昇熙〕 韓씨는 강도상해, 밀항위조, 폭력, 업무상과실치상, 향군법위반등 전과6범. 어머니(43)도 그 남동생집 恩平區舊把撥洞에 살고있고 서울 가족으론 동생(25)이 있다.

〔李양주변〕 李모씨(75)의 3남2녀중 막내딸로 서울恩平區磻磻洞83의16에서 부모, 오빠들과 함께 살아왔다. S여중·고와 H大미술대를 나온 李양은 플라자호텔에서 실내장식일을 보다가 주한일본대사관에 근무한 적도 있으며 한때 친구가 낸 화실에 다니기도했는데 가족들에따르면 성격이 차분하고 성실하며 검소한 편이었다.

미모에 특히 눈이 예쁜 李양은 82년5월2일 미스서울로 선발됐었다.

韓씨는 첩살이하는 술집마담 홍모씨(52)의 차남.

韓씨는 고교3년때 S대교수인 부모가 미국에교환교수로 가있는 고교2년의 여학생을만나 동거하다 이혼, 현재10살된 아들과 4살된딸을두고있는데 이들은 모두 전부인이 양육하고있다.

키 1m70cm인 韓씨는 여자같이 얌전한외모에다 파마머리를하고 선글라스를 끼고다니는등 멋장이 차림이었다.

韓씨는 또미국 케네디하이스쿨2년을 다니다 결혼하기위해 일시귀국했다면서 李양에게『결혼해서같이 미국에 가서살자』고 졸랐다.

韓씨는 한상달러지폐 수십장씩을갖고 다니며 재미교포행세도해왔는데 미국명은필립이라고했다.

지난8월초 李양과 피서를 갔다온뒤에도 사업을 한다며 江南區瑞草洞 신동아아파트 11층5호에 보증금3백만원에 월세30만원으로 아파트 1채를세내 李양을 가족들과 격리, 감금한채 동거생활을 해왔으며 李양의 외출때는 서울2다1807호 회색피아트에 태워 다니며 감시했다는것.

李양의 부모는 韓씨가 전처와의 사이에 소생이 2명이나있어 이들의 결혼을극력반대해왔다.

臟物조차 헛짚은 「과학搜査」

없어졌다던 카메라 벽에 걸려있었다

校長부인 被殺사건

犯人발자국도 수사관것으로 뒤늦게 확인

비디오촬영까지 해가면서 과학수사를 펴던 경찰이 초동수사에서 장물조사조차 제대로못해 망신을 당했다.

서울道峰區水踰5洞 敦岩국교교장부인 崔玉珠씨(49) 집 강도살인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현장조사결과 카메라2대가 없어졌다고판단, 품표까지 만들어 전국에 장물수배를 했었는데 그 카메라 2대가 사건발생6일만에 崔씨집에서 발견된것.

숨진 崔씨의 남편 姜澤中씨(54)등 가족들은 11일 경기 松楸의 崔씨 묘소에서 삼우제를 지내고온뒤 집안을정리하던중 전년방 장롱뒷벽에 보자기에 싸인채걸려있는 카메라 2대를 찾아냈는데 이 카메라는 장롱과 벽사이 25cm가량의 틈의 벽쪽에 푸른색 헌보자기에 싸인채 높이 1m가량의 못에 걸려 있었다.

경찰은 장물수배까지 했던 카메라가 다시 발견되자 범인의 가족이나 주변인물이 경찰수사망이 좁혀지자 가져다 놓은게 아닌가보고 사건발생이후 崔씨집을 드나들었던 친·인척과 이날 집을 지키고있던 친척들의 지문까지 채취, 대조하는등 소동을 벌였으나 카메라를 싼보자기에 먼지가 앉은점등으로 미루어 평소 꼼꼼한 성격인 崔씨가 눈에 띄지않는곳에 보관해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장물수배전단에서 카메라 2대를 삭제했다.

수사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범죄수사의 요체인 현장감식과정에서 기본원칙으로 되어있는 면밀하고 반복적인현장관찰을 소홀히 한결과』라고 수사의 헛점을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발생직후 현장감식과정에서 범인의것으로 보이는 족적2개를 찾아 냈다고 발표했었는데 현장을 드나들었던 수사관의것으로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M.16으로 強盜모의

銀行털려던 一黨4명 事前검거

M16소총과 승용차를 훔쳐 추석을 앞두고 재벌이나 은행등을 털려던 일당 4명이 사전에 검거됐다.

서울龍山경찰서는 13일 주범 金在玟(28·무직·주거부정)과 공범 李鉉培(28·서울城東區金湖洞1街128의10) 崔炳春(30·주거부정) 徐鉉模(28·城南市中東79)등 4명을 특수강도절도 군용물등 범죄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주범金은 지난12일상오6시께 서울龍山區漢南洞H호텔 주차장에서 승용차의 휘발유를 훔치다가 경비원 崔永洙씨(39)에게 발각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金씨가 타고다니던 승용차트렁크에서 M16소총과 실탄37발, 탄창2개, 양초등으로만든 가짜다이너마이트 12개등이든 가방을 발견, 추궁한결과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주범金은 경찰에서 지난2일하오5시께 서울江南區新沙洞88를길앞길에서 서울3가6923호 레코드로얄 승용차를훔쳐 서울4라4256호 가짜번호판을 달고다니며 최근부터 은행재벌 사채업자중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해왔다는것.

주범金은 77년6월 자신이 근무하던 육군모부대에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M16소총 1정과 실탄 탄창등을 훔쳐 부대뒤 야산에 묻어두었다가 78년9월 제대뒤 공범李의집에 4월 캐내 보관해왔다는것.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80년2월에도 서울西大門區弘恩洞429 현대주택 마동505호 柳진철씨(37)집에 복면을하고 들어가 M16소총으로 위협, 현금등 30여만원어치를 털었고 그뒤에도 서울江南區淸潭洞 주택가에 침입하려다 실패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훔친 M16소총을 개머리판을 잘라내 숨겨다녔는데 5억원정도를 털어 濟州島에 호텔을 지어 관광사업을 하려했다고 말했다.

中大生 2명구속 집회시위법 위반

서울鷺梁津경찰서는 13일 中央大 문예창작과 3년 李根原군(23), 체육학과 3년 林在善군(23)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9일 상오11시55분께 학교도서관 옥상에서 「학우에게 보내는글」이라는 유인물 3백여장을 뿌려 반정부시위를 주동한 혐의다.

自然보호 운동으로 山林훼손·벌채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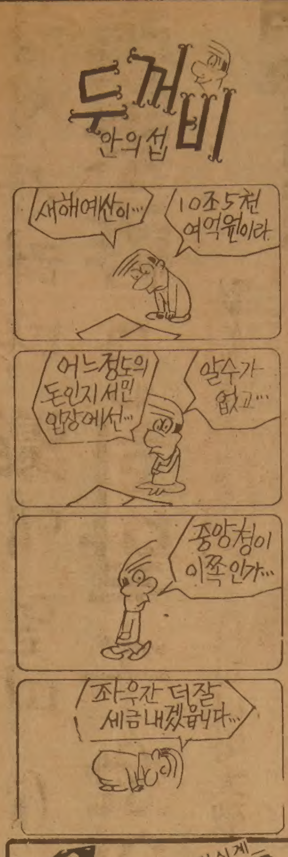
【浦項】자연보호운동이 정착되면서 경북迎日郡관내에서는 해마다 산림훼손및 벌채사범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9%줄어들었으며 피해면적은 11.6ha보다 6.5ha, 피해액도 98만원에 비해 절반이 상각줄어든것이다.【鮮】

7명죽고 셋重輕傷 週末교통사고 3件

【釜山】트럭이 언덕아래로 굴러 일가족3명이 숨지고 택시가 트럭을 들이받아 사상자를 내는등 주말에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모두 7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2일상오 11시5분께 부산西區下端洞505 에덴공원입구 언덕길에서 경남7아5542호 덤프트럭(운전사 黃순필·27)이 30도 경사길을 내려오다 높이 1.5m 언덕아래로 굴러 이곳을 지나가던 부산 감천국교 교사 李영창씨(34·西區下端洞829)와 부인 李신여여인(27) 장남 황군(2)등 일가족 3명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30대 여인을 그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3세가량의 남자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혔다.【鮮】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학생 시범단組織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연맹(총재 金容然)은 전국의초·중·고교학생들을 대상으로「학생 시범단」을 조직 운영키로하고 14일부터 각지역별로 발단식을 갖기 시작, 올해안에 우선 1만명의 단원을 확보하기로했다.

청소년연맹은 이들 시범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국가관 호국사상등에대한 교재와 애국 전통해양분야의 프로그램을개발, 보급하고 건전한청소년 문화 육성활동도 펴나가기로 했다.

한국청소년연맹이 지정한 전국95개시범학교는 지난달말부터 단원을 모집하기 시작해 이미 9천여명이 학생시범단에 가입했다.

腦炎증세 한풀꺾여

12일고비로 "내년부터 예방접종無料"

보사부는 13일 내년부터 전국의 3~15세 어린이전원과 농어촌취약지주민에 대한 뇌염의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키로했다.

보사부는 특히 일본뇌염을 의료보험에 포함시켜 보험가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받을수 있게하고 일반병·의원에서 의사증세환자를 포함한 모든 뇌염환자에게 치료비를 할인해 주도록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증가일로에있던 뇌염환자는 12일께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지난8일 전국에서 1백72명의 환자가 발생했던것이 9일에는 1백57명, 10일 1백48명으로 떨어졌으며 12일에는 57명으로 크게 줄었다.

집修理중 金塊발견 나눠가진 人夫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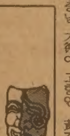
서울西部경찰서는 13일 蔡洙億씨(44·목공·서울恩平區新寺洞293의5) 權泰根씨(29·목공·서울恩平區 岩2洞514의5)등 4명을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8일상오8시께 서울恩平區岩洞126의45 安煥淑씨(44·여) 집현관천장수리를하다 安씨가 5년전부터 천장에숨겨오던 금괴37개(3백70돈쭝·싯가1천4백80만원)·황금팔찌18개(1백16돈쭝·싯가 4백65만원)등 모두 1천9백45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나누어가진혐의다.

이들은 현장소장 金하남씨(43)로부터 천장은 뜯지말라는 지시를받고 일을 시작했으나 일을하던중 천장이내려앉자 다시뜯어맞추던중 금괴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黃판사」 서울市警 면허계장 黃仁燮경정

制服36년…"다시 태어나도 이길을"



서울시경 면허계장 黃仁燮경정(61·사진)을 주위에서 「黃판사」라고 불러준다. 답답할만큼 매사를 공평무사하게 원리원칙대로 처리한다고 해서 얻은 별명이다.

13일 소문을 듣고 찾아간 기자에게 黃경정은 『못난사람을 써서 뭐하겠느냐』며 좀처럼 입을 열려하지 않는다. 옆에 앉은 동료들이 답답했는지 『黃경정이야 말로 경찰의 師表』라고 대신 입을연다. 회갑을 지난해 지내고 정년이 3개월밖에 남지않았는데도 대쪽같은 근무태도엔 조금도 변함이없다는 동료들의 귀띔.

충남 大德이 고향인 黃경정은 국민학교를 나온후 독학으로 46년 경찰관이 됐다. 그당시 漢學에 깊은지식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는『절대로 관폐나 민폐를 끼치는 경찰관이 되지 말라』는 말을 가르침으로 남겼다. 이 말은 黃경정의 평생의 생활철학이 되어 그를 답답하고 우직하다고 평을 듣는「黃판사」로 만들었다.

명절이라고 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성의가 있는 인사한번 받은 일 없고 그렇다고 상관에게 제대로 인사한번 한일 없다. 한번은 파출소장으로부터 봉투하나를 받고 감사와 훈계를 담은 장문의 편지와 함께 돌려주었다.

어느해 겨울인가 그의 집에 쌀이 떨어진 것을 안 부하직원이 쌀한가마니를 던지다시피하고 달아났다. 黃경정은 눈쌓인 밤길에 쌀가마니를 지고가 돌려주었다.

그에게도 단한번 물건을 들고 상관을 찾은 일이 있다. 평소 존경하던 상관에게 달걀한줄을 들고 신정인사를 갔었다. 그의 생활태도를 아는 상관도 그선물만큼은 차마 뿌리치지 못했다.

이같은 태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부하들로부터 「성의를 몰라주는 사람」, 상관들로부터는 「요령없는 사람」이란 말을 늘었고 동료들은 「모자란 사람」이라고 핀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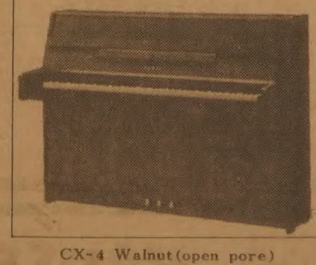
타협을 모르는 고집스런 근무태도는 또한 가족들에게도 많은 고생을 안겨주었다. 부인과 가족(4남2녀)이 부업전선에 나서야했던것이다.

『36년간 경찰관생활에 후회는없어요. 모자란 사람, 융통성없는 사람이란 소릴들었지만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겁니다. 올바른 일에 타협과 융통성이 끼어든다는 자체가 이상하지요』【方旼俊기자】

5주년 개업기념 스페샬

★기 간 : 9 월 1 일~9 월30일

10~30% OFF



CX-4 Walnut(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Reg.)

DX300 $3,495-REG

DX80 (Reg) $1,595

DX90 $1,895-REG

DX100 $2,395-REG
DX200 $2,995-REG

⊙새로 도입된 DX 전자올갠 전 모델(10% -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 15%)
⊙기타 USED 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KS3F(50 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T7(46 인치)
Reg.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US 50(52 인치)
Reg. $5,995

⊙CE7N open walnut $3,395
Reg.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KL32WG(52 인치)
Reg. $6,4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32 WD.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 883-9407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 섭

投手力의 한국、打力의 日本
宿命의 한판

쉽게 가려다 濠에 덜미 6—6 오늘 계속
張孝祚 9회말 千金의 同點打

27회 세계野球선수권대회 <제9일>

日、파나마大破 7승1패 단독先頭

재치와 팀웍으로 힘의 야구를 제치고 아시아의 두 강자 한국과 日本이 14일 하오 6시30분 잠실구장서 제27회 세계 아마추어 야구선수권대회 정상을 가리는 한판 대결을 벌인다.

한국과 日本은 모두 7승 1패。대회5일째부터 줄곧 공동선두를 달려온 두팀은 공격보다는 견실한 수비、파워보다는 팀웍을 내세우는 비슷한 스타일의 야구를 하고 있다.

한국은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속구투수 宣銅烈과 완숙기에 접어든 崔東原등 日本보다 탄탄한 마운드를 갖고 있다.

日本은 타격과 내·외야 수비에서 더 강세다. 세계 선수권대회 첫우승을 노리는 숙명의 라이벌전에서 한국은 방어율 0.45의 宣銅烈을 비롯한 철벽 마운드에、日本은 다께쓰에(武居)를 비롯한 폭발적인 강타선에 승부를 걸고 있다.

이날 한국과 濠州경기는 9회까지 6—6으로 비겨、시간제한서스펜디드·게임이되어 14일상오10시30분 계속 경기를 갖는다.

◇한국 공격의 核 李海昌 한국타격의 중심선수인 주장 李海昌。프로진출을 앞두고 아마대표선수로 유종의미를 장식하기위해 맹타를 과시하고있다。29살、180㎝、70㎏。

◇4할9푼 日打者 다께스에 日本의 강타자 다께스에。타율4할9푼6리、홈런4개를 기록하고있는 공포의선수。

◇제9일전적

◆서울운동장

파나마	020	000	000	2
일본	020	002	03×	7

▲홈런=武居(2회、6회·2점·일본) ▲안타=파나마12—12일본

◆잠실

호주	000	050	001	×
한국	012	000	021	×

▲호주투수=엘크슨 포수=렐약 ▲한국투수=崔東原、吳泳日(5회)、金始眞(6회) 포수=沈載元 ▲홈런=柳斗烈(2회) 李海昌(3회·2점·이상한국) ▲안타=호주×—×한국

◇제8일전적(12일)

◆잠실운동장

자유중국	010	002	0…1	4
파나마	000	120	0…6	3

▲안타=자유중국13—7파나마〈연장11회〉

캐나다	002	000	000	2
파나마	000	000	000	0

▲안타=캐나다11—6파나마

한국	001	010	001	3
도미니카	000	000	000	0

▲안타=한국8—4도미니카 ▲한국투수=朴東洙、任昊均(6회) 포수=沈載元 ▲도미니카투수=도밍게스 포수=오리스

◆서울운동장

호주	301	100	001	6
이탈리아	000	001	102	4

▲안타=호주11—9이탈리아

일본	020	012	000	5
네덜란드	000	000	000	0

▲홈런=사까모또(2회) 무라까미(6회·2점·이상일본) ▲안타=일본10—3네덜란드

◇각종세계대회 韓日 전적

연도	대회명	韓전적日	한국성적
75년	제 2 회슈퍼월드컵 (캐나다)	0—1	예선탈락
76년	제24회세계선수권 (콜롬비아)	6—4	5위
77년	제 3 회슈퍼월드컵 (니콰라과)	0—1	예선전
〃	〃	3—2	결승전한국우승
78년	제25회세계선수권 (이탈리아)	5—4	3위(8승2패)
80년	제26회세계선수권 (일본)	6—4	日本과공동준우승
81년	제 5 회대륙간컵 (캐나다)	2—0	3위(5승2패)

世界여자배구 24팀出戰개막

제9회 세계여자배구 선수권대회가 13일(한국시간) 南美의 페루에서 개막됐다。

각지역 예선을 거친 세계 상위 24개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페루의 수도 리마등 6개 지역에서 13일간 계속된다。

이번대회 참가24개팀은 4팀씩 6개예선조로 나뉘어 리그전을 펼친뒤 각조 상위 2팀이 예선관문을통과하게된다。한국팀은 西獨·브라질·파라과이와 함께 예선E조에 속해 예선통과는 낙관적이며 최소한 4강에는 오를수 있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예선전을 펼치는 장소(아레키파)가 기압이 낮은 고산지대여서 어느정도 적응하느냐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女 천6백m릴레이 東獨선수 世界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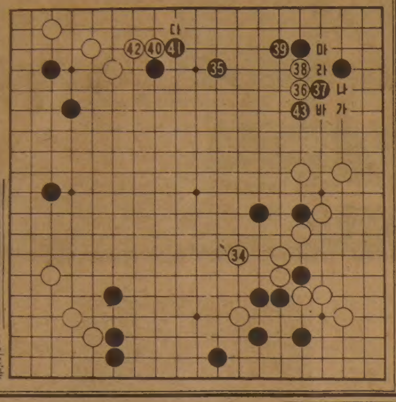
【아테네AP=聯】東獨은 12일 아테네에서 벌어진 유럽육상선수권대회 여자 1천6백m 릴레이에서 3분19초05로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코너스·에버트優勝 全美오픈테니스 男女단식

【뉴욕AP=聯】지미·코너즈(미국)와 크리스·에버트·로이드(미국)가 全美오픈테니스 선수권대회서 각각 남녀단식서 우승을차지했다。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2局 第4譜 34～43
白(初段) 崔珪昞
黑(6段) 徐能旭
(각 4시간·덤5집반)



전보에서 黑의 과격한 수를 다스리지 못한 崔초단은 10분가량 호흡을 조정하더니 白34로 뛰어나와 戰列을 정비했다. 그러나 위기를 모면한 徐6단이 黑35로 좋은자리에 先行하자 머리를 사뭇 치며 白36. 이수로 白「가」면 黑36으로서 멋진 진용이 형성된다. 黑도 37을 38의곳에 치받으면 白「나」의 상용수법을 당한다. 따라서 여기까지 피차 허허실실의 흥정이 볼만했는데 이때 갑자기 白쪽에서 치받아버린 38이 문제의 한수였다. 국후 趙南哲8단은 단적으로 무모한 수라며 「黑37에 대해서는 참고도의 白2가 호착이다. 黑3이면 白4、6으로 좋고 또 黑3을 4면 白「A」 黑「B」 白「C」로 처리한다」고 해설했다.

白、重大한 착각

黑39를 본 崔초단은 갑자기 白40、42로 붙여 뻗었지만 이것이 또 과했던 모양이다. 실은 白42면 黑은 으레「다」의 곳으로 내려섰을 것이다. 따라서 白40은 그저「라」로를 어가 黑「마」때 白「바」로 젖혀 뻗어야 이른바 次善策이었다. 黑43당한 대미지는 白「다」로 젖히는 정도로 도저히 가시지 않을 것이다. 崔초단의 낯이 보기에 딱할 정도로 홍조되었다. [一凡]

눈길끈 受賞작품 紙上紹介

영예의 國務總理賞 電粒子운동

◇국무총리상을 탄 朴炳鐵교사。

朴炳鐵교사 〈全南工高〉

물리 현상가운데 電粒子운동과 電磁氣波원리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어 내용자체는 물론 이해하기가 무척 어려운것으로 되어있다.

全南工高교사 朴炳鐵씨(32)의 「高電粒子운동과 電磁氣波실험장치개발」은 바로 이같이 어려운 電磁場속에서의 高電粒子운동과 電磁氣波의 성질과 전자사이에 작용하는 힘(作用力)을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내용을 이해하기쉽도록 敎材를 개발한 것이다.

朴교사가 개발한 장치를 이용하면 ①磁氣場속에서의 高電粒子운동과 ②電磁氣波 현상 ③전자의 상호 작용(引力과 斥力)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美국제科學展 참가 特賞 오존植物 피해 분석

◇美국제과학전에참가할「오존발생피해」의 安養신안중팀。

崔 埌·朴秀烈·李珍炯 〈安養신안중〉

경기安養 신안중3년 崔埌·朴秀烈·李珍炯군의 「오존에 의한 식물잎의 성분변화조사」는 대기중의 오존농도에 따른 식물의 피해 상황을 광범위하게 조사、여기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반대로 식물의 시드는 정도를 이용해서 대기중의 오존 오염도를 알아낼수 있도록 한것.

교사 崔存鉉씨(46)의 지도로 80년2월부터 조사에 착수、2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오존발생장치가 없어 이를 직접 만드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며 실험결과 식물에서는 파、나무에서는 벚나무가 오존에 대해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崔·朴·李군팀은 파를 지표로 이용、대기중 오존함량을 알아내는 방법도 알아냈다.

주간女性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15>

朴婉緒 作　金光培 畵

미리 온 아이⑱

일환이가 잠시 말을 끊었다。오목이는 까닭없이 가슴을 울렁거리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가게에나 갈때마다 아들 낳았다고 풍겼지。대가리에 피도 안마른 아녀석들한다는 소리가 뭐였게? 우리가 속도위반을 했다는 거야。음탕하게 킬킬대면서말야」

「그래서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싫었던지 다짜고짜 손찌검부터 해버렸어。흠씬 두들겨 패주고 나니까 잠깐속이 후련하더군。그 후 다시 그런 소리들을 안하게 됐지만 가만히들 있는게 되레 더 기분 나쁜양 저희끼리만 짝고 뒤에서 수군수군 비웃는 것 같아서 말야。그래서 여지껏 득남턱도 못하고 말았어。오늘이야말로 득남턱을 하고 기분좋게 집에들어가리라 매일같이 벼러 봐도 누가 득남턱을 내라야말이지。혼자서 맨날 술을 퍼마셨지。득남턱이 마치 내 집 문지방인것처럼 그걸 안하면 집에 절대로 들어 가지 말아야지하는 고집같은게 생기더구먼…」

「여보 우리 아기는 좀 일찍 태어났을뿐이에요。경험많은 할머니도 그렇고 안집 여자도 그랬구요」

「그래 참 이놈이 팔삭둥이였지?」

일환이가 뜻밖에 오목이의 말에 순순히 승복하며 절절하게 슬픈 눈으로 아기를 들여다 보았다。그녀는 처음으로 아기의 모습이 그 얘 드러나는걸 겁내지 않았다。떳떳해서가 아니었다。그는 이제 두려워할 여지 없이 지치고 초라해보였다。마치 패잔병처럼。술과 함께 의혹이 그를 그꼴로 만들었으리라。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극복한게 아니라 패잔해서 거기 돌아와 있었다。그 방안이 어둑시근해졌다。그의 투박한 얼굴에 두개의 표정이 미묘하게 엇갈렸다。속도위반 소리에 길길이 날뛸을 부리던 심술한 우직성과 패잔에 적응해 조속히 편안해지려는 지칠대로 지친 교활함이 명암을 이룬 그의 얼굴을 훔쳐보며 오목이는 아픈 마음으로 그녀의 지난날의 맹세를 되새겼다。그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리라。그렇게 맹세할 적마다 마치 자신이 양가집 규수가 된 것같은 착각을 느끼곤했었다。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았어。그녀는 그 맹세를 새롭게 하려고 했지만 양가집 규수는 커녕 더러운 거짓말에 치사한 속임수를 보탠 것처럼 파렴치해진 자신과 직면할 뿐이었다。

그들은 나란히 집으로 돌아왔다。

「내일은 아침부터 방을 얻으러 나가자구…」

일환이는 아기를 안아주기까지 하면서 짐짓 들뜬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다음날 그들은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방을 얻으러 나갔다。처음부터 방값이 가장 싼동네를 골라서 나선길이라 자연히 높은 지대만 헤매게 되었다。그래도 오목이는 즐거웠다。고지대일수록 해빛이 넉넉해서 좋았고、손에 돈을 쥐고 복덕방을 통해서 방을 얻는다는게 그렇게 좋을수가 없었다。큰부자가 된것처럼 뿌듯했고、노래기와 그리마와 지네가 득시글대는 땅속 방에서 살던일이 먼옛날 일 처럼 지겹고、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비탈에 제비집처럼 위태롭게 매달린 판자집의 방한칸을 세놓아 먹으려는 주인들은 인정머리가 없고 거만했다。등에 업힌 어린것만 보고도 질겁을 하면서 문지방도 못넘게하는 집주인도 있었다。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빈드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김명종한약방
침 · 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 기혈부족 · 신경과민 · 노이로제 · 허리병 · 근육통 · 부인병 ·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빙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Richard Y. K. Wong Insurance Broker
보험
⊙자동차
⊙주택
⊙상업(가게 · 레스토랑등)전문
312 DUNDAS ST. W. TOR.
(B)977—4057 (H)461—7769
Registered Insurance Broker 리차드 · 왕

거북이선물집
각종귀국선물 염가봉사
617 BLOOR ST. W. TOR.
☎ : B) 536-2143 R) 656-3446
대표 이 정 석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은 필히 구독해야 함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 · 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 · 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 · 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 W.
781-9122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전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조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 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 - 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마련.
전화 : 532-1054(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 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 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신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광 고 접 수
533~2361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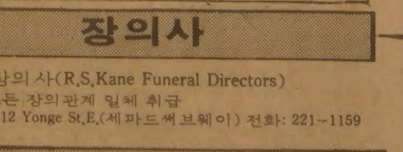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한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신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 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이내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교인학생으로서 주5일 하루3시간씩 집에 와서 ◉내방 바람. French, 한국어, 피아노, 미술과목 가르쳐 주실분. (하루 한과목 지도도 괜찮음) 2194 Bloor St. W.(Runnymede & Bloor)

(Variety & Grocery)
성실한 가게 Helper 구합니다.
전화 : 769–5956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Mon.–Fri. 11:00a.m.–3:00p.m.
전화 : 368–2470 (after 2:00 p.m.)

오후4시30분부터 7시까지
신문사 공무국에서 Helper로 일하실 남자분.
영구직임. 전화 : 533–2361

웨이트레스 구함.
Full Time 또는 Part Time
전화 : 656–0456, 654–6609

Hamburger 식당 HELPER 구함.(남자분 환영)
영어대화 필수. FULL TIME.
5608 YONGE ST. 내방바람. (HOT CORNER)

파타임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537–0432

유경험자 Cashier 구함.
Full Time 또는 Part Time.
Queen & Pape. 전화 : 463–6334

여권

성명: 김봉애, 여권번호: NO.1342408(대한민국 여권)
분실장소: 1982년 9월 14일 Store안에서
전화 : 921–4466 또는 291–0117

하숙

하숙 원합니다. 하루 저녁식사만 해주시면됨.
전화 : 533–0668 Mr. 신(6시이후 전화바람)

구혼

결혼상담,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 1시~10시 Mr.최·김

자기집 소유한 이혼한 40대 남자로서 결혼에 뜻이 있는 한국여성 구함. 어느 정도의 영어회화 요구됨.
전화 : 292–5430 (Mr. Kumar)

구직

바쁘신분들을 위하여 저의집에서 어린이들을 정성껏 보아드리겠읍니다. (스카브로 지역)
전화 : 264–3700 (Mrs. Lee)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어린애들(1살반, 3살반)봐 주시고, 약간의 살림도와 주실분.(나이아가라폭포 근처) 가족처럼 지낼것은 물론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음. 전화 : 716–634–5839(저녁6시이후 연락 바람.)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구함.
(Concord 지역)
전화 : 738–0050 (Mrs. 염)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636 Vaughan Rd. #1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조흥은행	363–3448

매매

서울집 식당 매매함. 관심 있으신 분 내방바람.
좋은 값으로 양도코저함.
615 Bloor St. W.

가정사정으로 부득이 앞으로 전망좋은 휜치×웨스턴 몰안에 있는 쌍방울 메리야스 가게(애기옷, 베드스프레드, 담요, 카페트)를 매매코저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애기옷 0–6살까지〉 3467 Finch West Mall
전화 : 746–3458 Mrs.윤

카메라 상점 급매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Mr.김

Smoke & Gift Shop
for Sale

High Sales Volume &
Best Lottery Ticket Sales place
No Competition &
No Grocery Prime Plaza in Scarborough.

For More Information & Appointment
Call : 751–5176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옵션 5년(Arbitr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발전성 있는 가게임. 현재 주매상 : $3,000
리스 : 5년 + 5년
전화 : 466–7698 Mr. Lee

벡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Variety & Gift Shop. 소자본으로 인수 가능.
발전성 있는 위치. 매상 증가 일로에 있음. 리스 : 5년+옵션 3년. 주소 : 290 Eglinton Ave. W.

Variety Store, no grocery
3447 St.Clair Ave. E.(at Birchmount)
전화 : 265–9000

새 Store 양도(New Plaza) 전망좋은 가게를 사정에 의하여 양도 코져함 새로 Set up 하실분.
전화 : 532–7421 Mr.서

Bloor West Village
▲Coffee Shop. 전망이 대단히 기대됨.
High Rise 건물들이 옆에 있음. 아스킹 : $29,000
▲Varity & Gift & 6 Video Machines
아스킹 : $34,000. 머신으로부터 월수입 $3,000
▲7 Unit Apt.
Gross : $25,400. 아스킹 : $220,000
▲Special Spacious Town House
3 Bed Rm. Balcony, Storage
Mortgage : $24,000 at 10%
Call : Doris Bruda 763–5555
High Park Area
▲Modern Full Equipped 49 Seats
식당+Two 6 Rooms Apt.
최고의 분위기를 갖추고 있음. 아스킹 : $49,500
Call : Goe Zammit 763–5555
Cholkan Real Estate

Carpet Cleaning Business for Sale
순 월수입(Net Income/M.) $4,000(Brampton 지역)
아스킹 : $20,000. 전화 : 791–3570(Mr. Yosuke)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5,000〉
아스킹 : 50,000+스탁. 렌트 : $900(2층에 4베드룸 포함)
4975 Yonge St. (세파드×영)

Tuck–Shop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2년+5년
연락처 : 272–4568, 270–1371

Store 장비 일절 급매(사용하던것)
오전중 문의바람.
전화 : 221–6544 (Mr. 안)

Variety & Grocery Store
주매상 : $5,700. 아스킹 : $57,000+스타
리스 : 5년+옵션 5년.(10개월전에 Open한 Store로서 앞으로 전망이 크게 기대됨)
2643 Eglinton Ave. E.

2층에 방2개 달린 코너 독채가게
주매상 : $3,500
주 소 : 1574 Kingston Rd.

Dry Cleaning Depot Store for Sale Lawrence & Eglinton area plaza안에 있음.
12 Flemington Rd. 전화 : 759–8658(R) 781–6774(B)

St. Catharines downtown 지역
건물(위층 APT. 살림집) 및 Business 팝니다.
현주매상 : $3,600이상 Good Location
계속 매상 늘고 있는 새로 Set up한 Store
Near G.M.Plant 관심있는분만 연락바람.
전화 : 1–685–5863

집렌트

4 Bed Room 집 전체를 싸게 세놓읍니다.
(Brampton)
전화 : 247–3216

4 Bed Room House전체를 세놓고자함(Brampton지역)
2 Bath Room, Family Room, Fire Place, 차고등.
$650/M. 학교와 Shopping plaza근처에 있음. 593–8943

5일에 $13로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 수 있읍니다.

아파트렌트

독신자 방세놓읍니다. (단기 체류도 환영)
또한 Part Time 봉제작업하실분 환영.
상세문의 6시이후 530–1046

방세 놓음. (College×Brunswick) 1 Bed Room
전화 : 923–6236

독신녀 방세 놓음(부엌 같이 사용)
전화 : 653–0771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시계 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Albion)
전화 : 742–1205(B) 743–4842(R) Mr.마

꽃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서)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5시 이후)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광고문의 ☎ : 533–2361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운동—

감사드립니다

—9월12일현재, 165교민께서 58,000 여불을 내 주셨읍니다.—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과 참여로써 한인회관 기금은 9월12일 현재 58,000여불을 돌파하였읍니다.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될 새로운 한인회관을 마련하는데 기꺼이 성금을 내주신 교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아직 참여치 못하신 교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인회관 확장이전 기금 : 보내주실곳 : K. C. C. A. — BUILDING FUND
20 Mobile Drive, Toronto, Ont. M4A 1H9

수표작성은 : Payable to K. C. C. A.
(뒷면에 회관기금임을 명기하실것)

연락및 문의처 : 토론토 한인회(☎ : 755—9288). 조한철(☎ : 745—1160)

한인회관 확장이전 기금내역

$5,000(1명) 신중화 $3,000(1명) 황대연
$2,000(4명) 이창복 박인순 박수영 정창헌
$1,000(9명) 함병섭, 함의현, 장순채, 이영현, 진필식, 성낙윤, 구연원, 서춘봉, 김영규

$700(1명) 이동일
$600(2명) 김상연, 유영목
$500(31명) 이훈모, 이병권, 김웅일, 강공선, 고순복, 이대환, 장추신, 성용창, 조한철, 원장호, 이정수, 임철원, 문인식, 최동주, 이정석, 변의섭, 김영석, 고정배, 송기선, 강기원, 박건우, 이상남, 이봉수, 송대헌, 이형인, 강준남, 유승현, 전경환(US), 김영대, 이영일, 이승열

$300(18명) 장영채, 김정운, 나옥녀, 전택균, 윤영일, 이양섭, 조지섭, 김용규, 박주삼, 허규갑, 허규상, 이한구, 호민식, 공재용, 서기진, 장영대, 최복기, 하소영
$200(21명) 전윤식, 조영호, 박찬도, 임윤식, 김정석, 김덕기, 김춘탁, 김신우, 신동운, 안국태, 김오석, 장한영, 라민근, 전정구, 김경용, 김성기, 강신봉, 표봉천, 유 인, 이 억, 문영환
$150(2명) 양정우, 윤길웅
$100(56명) 홍승해, 김 효, 심태식, 박대현, 이기훈, 오기환, 이영복, 이인석, 한천석, 임수철, 신영식, 원영신, 조기연, 장가진, 김성규, 정홍섭, 김정치, 김재온, 권태홍, 배기웅, 김학종, 남수명, 김광철, 최영길, 주재철, 조홍래, 익 명, 이명구, 라영삼, 김주학, 구철회, 엄주면, 정인기, 김홍량, 천중환, 김재용, 정해문, 이광한, 김왈근, 윤호석, 안병원, 최영덕, 박덕율, 이건길, 유사준, 신강용, 김형철, 손광수, 김진형, 함덕상, 배석구, 송남성, 송인문, 옥성빈, 김수균, 석영창
$50(15명) 이환규, 정삼열, 조남수, 김병선, 마보훈, 익 명, 이선조, 김동춘, 박천봉, 김신중, 이성우, 백경락, 윤여경, 이영규, 송완일
$20(2명) 송종구, 이세용
$30(1명) 심 홍

— 9월12일 현재 —
⊙총인원 165명
총 액 $58,720.00

토론토 한인회관 확장이전 모금위원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문제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있읍니다.

자연조건이 그 상궤를 이탈하고, 사회질서와 도덕기준이 붕괴 일로에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이 가치 표준을 잃고 선의 의지가 무너져내리고 있읍니다.

이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강건너 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고통 속에 점점 깊히 들어가고 있읍니다.
정치 경제가 수렁에 깊히 빠지고, 가정이 파탄 되고,
이웃은 냉담해지고, 마음은 황량해져서
우리는 안식처를 잃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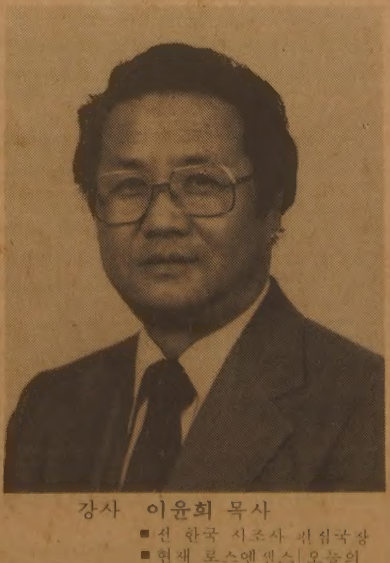
정치와 교육이 아무런 희망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우리는 그저 암담한 미래를 향하여 죄수처럼 끌려 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읍니까?

이런 문제를 의논해 보기 위해서 여기 신앙 강연회를 갖고
귀하를 초청합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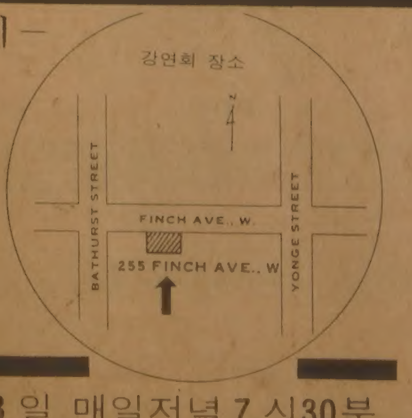


강사 이윤희 목사
■전 한국 시조사 서십국장
■현재 로스엔젤스 「오늘의 신앙」 방송목사
■올림픽교회 담임목사

신앙강연회

연제 — 마지막날을 위한 준비 —

9월24일(금) 가장 큰 희망
25일(토)낮 주님 그리스도
25일(토)저녁 적 그리스도의 정체
26일(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
27일(월) 짐승의 표
28일(화) 남은교회의 특징
29일(수) 바벨론의 술
10월1일(금) 마지막 전쟁
2일(토)낮 순종
2일(토)저녁 어린양의 혼인잔치
3일(일) 미래의 영광



차제에 우리의 자녀교육 문제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강사 박형종 목사

9월24일(금) 가장 중요한 교훈
25일(토) 자녀들의 여섯가지 필요
26일(일) 자녀지도의 열가지 지침
27일(월)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면?
28일(화) 훈련과 기율
29일(수) 동기유발은 어떻게?
10월1일(금) 반항하는 아이를 지도하려면
2일(토) 도덕심 배양시키는 방법
3일(일) 가정과 자녀교육

기간 : 1982년 9월24일~10월 3일 매일저녁 7시30분
장소 :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토론토 한인교회
(255 FINCH AVE. W. WILLOWDALE 전화 : 630-4284)
NORTH MINSTER 연합교회당